



제1편 지나온 60년, 위대한 발자취

CNU 60th Anniversary



제1장 설립 및 정착기 (1952. 5. 25 ~ 1963. 12. 31)

개 관

충남대학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 5월 도립대학으로 창립되었다. 대학 설립의 계기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피난 온 민태식 교수와 한학자 김순동 등이 전시연합대학의 설립을 계획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들에 의해 전시연합대학 설립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당시 대덕군 출신 제헌국회의원 송진백이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51년 5월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1951년 9월 문리과·법과·경상과 등 3개 학과의 전시연합대학이 발족되기에 이르렀다.¹⁾ 민태식 교수가 학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충남 출신 교수와 학자들이 강의를 맡았다. 이 전시연합대학이 충남대학교 설립의 모태가 되었다.

1951년 11월부터 충남지역의 유지들은 충남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11월 23일 충청남도의 시장·군수·경찰서장 회의에서 충남대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다음 해 1월까지 10억원을 모으기로 하였다. 회장에는 이영진 충남지사, 부회장에 충남도 문교사회국장장 민간인 1명을 위촉하고, 시, 군에는 시장과 군수를 각기 기성회의 지부 회장을, 경찰서장은 이사를 위촉하였다.²⁾ 대전시의 경우는 손영도 시장이 지부 회장을 송진백·김용성 등이 이사를 맡았다. 기성회의 모금 운동은 범 도민적으로 전개되었다. 시, 군별로 주민들에게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기부를 호소했다. 도민들은 돈이 없으면 쌀을 내는 등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탰다. 충남석유조합연합회는 5백만원을 기탁했으며, 대전고등학교 호국단에서는 20만원을 냈다. 서산 지역의 김두환·유승노·최병운·윤수권과 당진의 최한영·홍사철, 대전의 문갑동 등이 거액을 쾌척했다.

이와같은 기성회의 활동이 결실을 보아 1952년 4월 10일 문교부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충남대

1) 《대전일보》 1951년 8월 21일, 「전시연합대학 마침내 인가」.

2) 李寧鎭지사는 초대 충남도지사로 1948년 10월 18일 취임하여 충남대설립기성회를 조직한 직후인 1951년 12월 17일 퇴임하였다. 그의 후임으로 陳憲植 지사가 부임하여 기성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진현식 지사는 1952년 8월 29일까지 재임하고, 제3대 지사로 成樂緒지사가 1952년 9월 9일 부임하여 1954년 9월 27일 까지 재임하였다.



학의 설립 인가를 결의하였으며³⁾, 5월 25일 정식으로 설립을 인가하였다.⁴⁾ 공식적으로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자 진헌식 충청남도 지사가 총장서리에, 전시연합대학 학장이던 민태식 교수가 초대학장 서리로 취임하였다. 충남대학은 도립 대학교로 발족한 만큼 타도의 국립 종합대학교와 같이 전임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설립자인 충청남도 도지사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다. 전시체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 모집을 진행하고 비록 교사(校舍)와 교수진이 부족한 형편에서도 대학은 자리를 잡아갔다. 개교 당시에는 문리과대학과 농과대학·공과대학의 3개 단과대학에 7개 학과의 총 1,800명의 학생 정원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공과대학은 별도 지사가 있을 때까지 개교하지 못하도록 되었으며, 농과대학은 개교에 필요한 준비가 완성될 때까지 입학생 모집이 보류되었다. 결국 문리과대학의 문학과·이학과·법학과 등 3개 학과(정원 220명)의 제1회 신입생을 모집하여 1952년 6월 7일 대전시공관에서 역사적인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진헌식 총장 서리가 8월 내무부장관으로 전출해감에 따라 후임으로 부임한 성낙서 지사가 1952년 9월 9일자로 총장 서리로 취임하였다. 성낙서 총장서리는 재단법인으로 충남대학교 후원재단을 설립하고 사무소는 대학의 사무국 내에 두었다. 기본 재산은 설립기성회에서 기부한 국채권과 현금 10억 원이었다. 재단은 설립 후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고북면의 해안 90여 정보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얻어 염전의 조성에 착공한 바 있으나, 재정조달이 용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해의 극심한 해량으로 시공한 시설이 누차 유실되어 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성낙서 총장 서리가 1954년 9월 27일 지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본교의 총장 서리도 자동 사임하게 되었다. 그 후 약 2개월간 공석 중이었다가 같은 해 12월 2일자로 문리과대학 민태식 학장이 총장 서리를 겸무하였다.

1955년 6월 30일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전교 교수회에서 민태식 총장 서리를 총장으로 선출하였고, 같은 해 8월 29일자로 민태식 교수가 제1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동안 지사겸직 총장 서리가 개교 이래 대학 행정을 맡아 오다가 비로소 민태식 교수가 전임 총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민태식 총장은 1954년 12월부터 1960년에 이르는 만 5년이 넘는 총장 재임 시기에 교지 확장·교사 증축·대학원 인가·도서관 신설·실험실 확장·실습 공장 신설·교원 충원 등의 일을 수행하였다.

대학의 창립 초기에 학교 부지와 교사(校舍)의 확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였다. 초창기 대학에서는 충남도에서 제공한 대사동과 문화동 일대의 국유지와 도비로 매입한 토지 총 349,314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교사는 인근의 공공건물을 대여 받아 강의를 시작하였다. 문리과대학은 1952년 6월 개강 시에는 전시연합대학에서 사용하던 대흥초등학교의 교실과 법원의 일부 건물을 대여

3) 《대전일보》 1952년 4월 13일, 「충남대 마침내 정식 인가」.

4) ‘文高제480호’ 충남대학교, 『인가관계서류철』.



받았으며, 그해 7월에는 충남 도청 서남쪽에 위치한 목조 창고를 교실로 개수하여 강의하였다. 1954년 12월 비로소 대사동 부지에 제2본관 와옥 321평을 준공하고 1955년 4월에 교사를 이전하였다. 화학과 물리학 실험실을 비롯하여 특수과학관이 설치되었다. 1959년 12월말에는 총 1,626평의 교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농과대학은 문교부에서 요구하는 미비 조건을 보완하여 1952년 6월 입학시험을 치러 7월 개강하였다. 그러나 교실이 없어 지금의 동산중학교 자리에 있던 충남농업기술원을 대여 받아 강의하였다. 초대 학장에는 강진형교수가 임명되었다. 1954년 4월에 제1실험실을 준공하고 농업기술원 가교사로부터 이전하고 이후 제1본관의 완공으로 1959년 12월말 총 1,324평의 건물과 부속 농장·부속 동물사육장도 확보하게 되었다. 대학의 연습림으로 보문산 178,920평을 대여 받아 실험 농장으로 운영하였다.

그간 보류되었던 공과대학은 1954년 4월 15일 개교가 승인되었다. 개교 승인 직후에 건축공학과와 섬유공학과 학생을 모집한 공과대학은 처음에는 농과대학 실험실 일부를 교실로 사용하였다. 1955년 9월에 문화동에 교사 일부가 완공되어 이전하여 수업하였다. 1959년 1월 화학공과대학이 증설되었다. 1959년 12월 공과대학에서 소유한 건평은 제1본관·제1실험실·가교사·부속 공장 등 총 952평에 달했다.

교직원 현황은 1952년 개교 당시에는 교수 정원 32명에 현원 12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59년 12월말 정원이 116명으로 증원되었으며, 현원도 74명으로 증원되었다. 직원도 1952년 12월말 현원 14명에 불과하던 것이 1960년 9월에는 30명으로 증가되었다. 도서관은 처음에는 문리과대학 내에 설치하고 논산 김용훈과 공주 이세찬, 대천 안모의 한서 각 5백여 권과 옥천 송재덕의 한서 1천여 권, 서울 김상용의 영문 서적, 경성대학교 교수였던 일인 모씨의 동양 철학서 200여 권, 그리고 사학자 황의돈의 장서 1,200여 권을 매입하거나 기증을 받아서 개관하였다. 1956년 12월 대흥동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1957년 4월 도서를 이전하면서 비로소 충남대학교 부속 도서관이 발족되었다. 이 건물은 연와조의 2층 건물로, 총 공사비는 4,590만 원이었는데 이는 국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졌다. 이 무렵에 도서관의 장서 현황을 살펴보면 1957년 10월 31일 당시 31,639권이였다.

한편 직장을 가진 이나 혹은 면학 희망자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958년 9월 18일 2부(야간부)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1959년 7월에는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백제연구회를 설립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민태식 총장은 자신이 백제연구회 이사장과 회장을 맡았으며, 연구위원으로 김순동, 김선기 문교부차관, 이병도, 김상기, 이흥직, 노도양, 김형기, 유원동, 황수영, 홍사준 등을 선임하였다. 또한 대학신문사를 설치하여 충남대학



교 학보를 창간 발행하고, 교수논문집 제1집을 1959년 12월 3일 창간하였다. 당시 금산과 부여 등이 인삼 재배의 적지임을 감안하여 농과대학에서 인삼 특수 재배와 연구에 힘쓰도록 권장하였다. 당시는 본교가 도립 대학으로서 충청남도의 재정만으로는 소기의 사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내무부의 재정 보조를 적극 교섭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대학은 문교부 예산에 의존하지만 도립 대학은 내무부와 도 예산에 의존하게 되어 있었다. 민태식 총장은 중앙의 내무부에 적극 교섭하여 많은 예산을 교부 받아서 넓은 교지를 매입하고 또 교사 증축에 힘썼다.

1960년대 대학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한국 사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1960년의 4·19혁명과 그 다음해의 5월 16일에 일어난 군사쿠데타가 그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래 이승만 정권은 광복을 계기로 축적된 민족의 역량을 집결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3·15 부정선거에 이르러 정권 획득을 위하여 마침내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 이에 민주주의의 깃발아래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자 1960년 4월 19일 이 땅의 대학인은 총궐기하였다. 이 4·19혁명은 또 한편으로는 학원의 자율과 민주화를 추동하였다.

1960년 4·19혁명 이후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위해 총장을 비롯한 전 보직자들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학원의 민주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정부의 임명 제도에 의하여 취임한 현직 총학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였다.⁵⁾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논의되는 가운데 4·19혁명 이후 학원 내외에서 총장 퇴임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1960년 6월 7일자로 문리과대학 김순동 학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민태식 총장도 사표를 제출하여 7월 16일자로 수리되었다.

민태식 총장의 퇴임으로 비어 있던 총장직에 철학과 이정호 교수가 1960년 7월 16일자로 정부 발령에 따라 총장 서리로 임명되었다. 정식 총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서리 발령을 낸 것은 문교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문교부는 본교 교수회에 후임 총장 서리의 선출을 일임하였다. 대학에서는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이정호 총장 서리를 선출하였으며, 그 후에 이병도 문교부장관 임석 하에 총장 선출 투표를 한 결과 이정호 교수가 압도적인 다수표를 획득하였다. 8월 29일에 이정호 교수가 총장직에 취임하게 되었는데, 선거에 의한 민선 총장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환영했다. 4·19혁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감각으로 학교 운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하여 신임 총장에 거는 기대는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이정호 총장은 취임사에서 난국에 처한 대학인의 새 각오를 촉구하였다. 학사 개편에 따라 학과가 변경되었으며, 이부대학이 문리과대학에 흡수되었다. 1960년 12월에는 고전번역연구회에서 조선후기의 실학자 반계 유형

5) 《경향신문》 1960년 5월 4일, 「학장사퇴요구, 충남대학 전교생」.



원의 『반계수록』(상, 하)을 완역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충남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반계수록』 번역을 시작한 것은 국학 진흥과 민족주체사상 고취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사회의 교권과 학생자치의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16 군사정부는 학원의 질서 확립을 특히 강조하였다. 5월 19일 제9회 개교기념일을 전후하여 ROTC 1기생의 입단식이 있었으며, 6월 12일에는 교모가 제정되었다. 6월 19일에는 문희석 문교부장관과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인 유진오 박사가 내교하여 학원의 범질서 유지 등을 강조하였다. 5·16의 격동과 시련 속에서도 대학 발전의 기틀은 착실하게 이어졌다. 6월 15일에는 농대 농산제조학과 실험실 1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9월 20일 후기 학위 수여식이 거행되고, 11월 1일에는 공대본관이 완공되었다. 11월 3일에는 학생단합 총궐기대회 및 재건학생회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1961년 9월 1일자로 고등교육정책에 하나의 획기적 의미를 지녔던 학사자격고시령이 공포되었다. 이 방침에 따라서 1962년 1월 22일 전국 대학 졸업예정자의 학사고시가 실시되어 180명에 대한 수료장 수여가 있었다.

군사정부는 1961년 8월 대학 정비 방안으로서 대학개편에 착수하였으니, 단위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 대학의 단과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국공립 대학이 있을 때는 이를 폐지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군사정부는 12월 4일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충남대학교는 충북대학과 병합하여 국립충청대학교로 개편하고 공주사범대학은 교육대학으로 승격시켜 충청대학에 예속시킨다는 방안이었다.

위 방안에 따라 1962년 3월 1일자로 충남대학은 충북대학과 합쳐 충청대학교로 발족하고 국립대학설치개정령에 의해 도립에서 국립으로 전환되었다.⁶⁾ 총장에 이정호 총장을 임명하고 공과대학에 건축공학·섬유공학·화학공학의 3개 학과, 문리과대학에 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사학·철학·물리학·화학·수학·법학·경영학의 9개 학과를 확충하였다. 종전의 2부대학은 문리과대학에 흡수하고, 농과대학은 폐지되었다. 충북대학교는 수학과가 폐과되었다. 그러나 캠퍼스의 분리 운영 등으로 여러 불편이 잇따르자 군사정부는 대학 정비 재조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대학은 1963년 3월에 국립 충남대학교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농과대학을 부활시켜 농학·축산학·농업토목학·농산제조학의 4개 학과를 설치하였다. 대학원에 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하여 농학·축산학·철학과 등 3개 학과를 설치하고, 석사학위과정도 영어영문학·사학·법학·수학·물리학·농업토목학·농산제조학·건축공학과 등 13개 학과를 신설하였다.

1963년 3월 농과대학장 강진형 교수가 신임총장에 취임하였다. 강진형 총장은 “미래의 시대에

6) 《충남대학보》 1962년 2월 28일, 「3월 1일부터 충청대학교로 발족」.

《충남대학보》 1962년 6월 4일, 「새 학칙 드디어 인가, 국립대학으로 체제 확립」.



대처할 수 있는 이성과 창의력의 개발”을 촉구하였다. 본부 청사의 준공에 이어 오랜 숙원이던 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며, 법경대학의 분립 설치를 비롯한 갖가지 시설의 확충을 추진하였다. 의과대학과 종합운동장 건설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공과대학의 신축 공사가 완공되어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4년 군사정부는 한일협정의 체결을 강행하고자 하였다.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대표들이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한일회담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였으며,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전국적 규모의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충남대학에서는 3월 26일 2교시가 끝난 후 ‘平和線을 死守하자’, ‘屈辱外交를 반대한다’ 등의 프랭카드를 들고 문리과대학과 농과대학, 공과대학 학생 7백여 명의 시위가 있었다. 6월 3일 전국적인 시위가 폭발하였는데, 충남대학에서는 2일부터 쫓겨대회가 일어났다. 농과대학 학생 4백여명은 교정에서 정부 성토대회를 열고 ‘무력한 황소, 농민은 통곡한다’ 등의 프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였다.⁷⁾ 학생의 시위가 날로 확대되자 급기야 6월 5일 임시휴교령이 내려졌으며, 7월 5일부터 조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⁸⁾

한일협정 반대운동은 이듬해인 1965년 8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휴교령이 되풀이되었다. 학생운동으로 인한 학원의 혼란 속에서도 발전을 향한 본교의 발자취는 꾸준히 계속되어 5월 25일의 개교 13주년을 계기로 제1회 보운제가 개최되었다. 1966년 1월에는 본교 중심의 충청남도대학교육회의 발족도 보게 되었으며 초대회장에 강진형 총장이 피선되었다. 2월 새학기부터는 교양학부가 신설되었으며,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여 학문연구의 전당으로서 대학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였다. 창의·탐구·개발의 3대 교시를 정하고 교육 방침을 제정하는 등 대학의 이념을 확정하여 대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육방침으로 ‘인격도야·연구투철·생산교육’을 정하였다. 대학의 지성과 정념의 상징인 교가도 제정되었다.

1967년 6월 8일 치러진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개투표, 대리투표, 율배미표 등 신조어를 남기면서 치러진 부정선거였다. 충남대학 학생들은 6월 15일 6·8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졌다. 오전 10시 문리대 운동장에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언문과 결의문을 낭독하고 교문을 나와 ‘민주주의는 통곡한다’는 구호를 달고 병무청과 도청, 대흥동 로타리를 거쳐 대전역에 집결하여 성토대회를 가졌다.⁹⁾ 학생들은 7월 3일 임시휴교를 마치고 개강하자 다시 시위에 들어갔으며 기한부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¹⁰⁾

7) 《동아일보》 1964년 6월 3일, 「초긴장, 대학가」.

8) 《충대신문》 1964년 7월 15일, 「굴욕한일협정에 본교생 울분, 성토와 단식과 매국노 화형식, 공대 이화인군은 혈서써서 국회로」.

9) 《경향신문》 1967년 6월 15일, 「학생데모 나홀췌」.

10) 《충대신문》 1967년 7월 12일, 「본교생 규탄데모, 7월 4일-8월 19일까지 방학」.



제1절 교무(학사)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초창기에 학칙을 비롯한 많은 규정이 제정·시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52년부터 1957년 사이에 시행되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는 것은 10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시행일자 미상인 것이 많다. 이후 본교가 국립 충청대학교로 개편됨에 따라 학칙 및 제 규정이 개정되었다.

학칙 및 제 규정(1952~1957년)

학칙·제 규정명	시행 연월일	비 고
1. 충남대학교 학칙	1952. 5. 25	
2.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1957. 4. 1	
3. 충남대학교 교무규정	1955.	시행 일자 미상
4. 충남대학교 교무규정	1957. 1. 1	
5. 충남대학교 위임전결사항	1956.	시행 일자 미상
6. 충남대학교 학생준칙	1955.	시행 일자 미상
7. 충남대학교 학생휴가 규정	1955.	시행 일자 미상
8.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학도호국단 단칙	1956.	시행 일자 미상

※ 본 자료는 학적과 보관 「충남대학교 요람 및 제 규정철」에 의한 것임

2. 대학과 대학원 개설

1) 대학

1952년 개교 당시에는 문리과대학과 농과대학만이 학생을 모집·개강하였다. 공과대학은 같은 해에 설치 인가되었지만 1954년에 개강하였다. 1952년도 문리과대학 정원은 문학과 480명, 이학과 360명, 법학과 320명으로 완성 연도 정원이 계 1,160명이었다. 문리과대학의 1952년 학과 별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문리과대학 학과별 학생수(1952년)

(단위 : 명)

학 과	학생수(1학년)	청강생	합 계	비 고
국문학과	37	3	40(8)	○은 상이군인임. ()은 여자임.
영문학과	31	4	35(2)	
철 학 과	11		11	
사 학 과	31		31	
물리학과	32	3	35①	
화 학 과	41	1	42(1)	
수 학 과	26	2	28①	
법 학 과	49	8	57②(3)	
계	258	21	279④(14)	

(1952년 충남대학교 요람 참조)

농과대학의 정원은 농학과 160명, 농업토목학과 160명으로 완성 연도 정원이 계 320명이었으며, 1952년 학생수는 농학과 청강생 2명을 포함하여 40명, 농업토목학과 청강생 4명을 포함하여 41명으로 총 81명이었다. 공과대학의 정원은 건축공학과 160명, 섬유공학과 160명으로 완성 연도 정원이 계 320명이었고 1952년에 개강하지 않고 1954년에 개강하였다.

2) 대학원

1957년 4월 6일자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설치인가를 얻었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시행된 대학원 학칙 제2조에 의하면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으나 박사학위 과정은 당분간 개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당시의 학생 현원에 관하여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고, 학칙 제3조에 명기된 석사학위 과정에 설치할 학과와 전공 및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1957년도)

	전 공 별	학생정원	비 고
국문학과	국어학, 국문학	8	
철 학 과	동양철학	8	
화 학 과	생화학, 유기화학	8	
농 학 과	농산가공학, 물리학, 농업경제학, 원예학	8	
축산학과	축산번식학, 낙농학	8	
계		40	

(1957년 대학원 학칙 참조)



1963년 2월 20일자로 농학과, 축산학과, 철학부에 박사과정을 최초로 신설하였다. 또한 영어 영문학과, 사학과, 법학과, 수학과, 물리과, 농업토목과, 농산제조학과, 건축공학과까지 석사과정 15개가 대폭 증설되었다. 1964년 2월 6일에는 섬유공학과와 화학공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됨으로써 본교 대학원은 박사과정 3개 학과, 석사과정 15개 학과로 증대되었다. 그 후 1966년 3월 1일에는 농업토목학과 및 농산제조학과에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초창기의 대학원이 성장 확대되어감에 따라 대학원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해졌다. 그리하여 1962년 12월 28일 문교부는 대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세워 전국 각 대학원장에게 이를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각 대학원은 교수로서 대학원장을 둔다.
- (2) 각 과정의 각 전공마다 주임 교수 1명씩을 둔다.
- (3) 대학원 학생 정원은 대학교 총 학생정원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수업 일수는 학년당 180일 이상으로 한다.
- (5) 그 시설은 주임 교수에게 전용 연구실과 학생들에게는 강의실, 연구실 등을 구비하도록 한다.

이로써 단과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대학원은 특수학과를 제외하고 폐지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 지시에 따른 계획서를 1963년 1월 5일까지 문교부에 제출토록 하여 학칙 변경의 인가를 얻도록 하였다.

1963년 충청대학교가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로 분리되고 적용한 학칙에서 특별한 변경 및 강화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6조 학위는 본교 대학원의 박사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 또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논문의 심사와 구술 시험 및 2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이를 수여한다.

제9조 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독·불 4개 국어 중 일종으로 작성하고 논문 초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초록은 국문으로 논문을 작성하였을 때는 외국어로,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하였을 때는 국문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이 심사 위원회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구술 시험과 외국어 시험을 과한다.

제16조 ① 구술 시험은 논문 심사 위원회의 호선으로 3인 이상의 시험 위원을 선정하여 시행케 한다.

② 구술 시험은 담당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공개할 수 있다.



- 제17조 ① 외국어 시험은 2종으로 하되 그 중 1종은 영어로 한다.
 ② 전항의 고사는 1종에 2인 이상의 위원으로써 시행한다.

3. 교무

1) 교과과정

1952년도 학칙 제20조에 의하면 각 대학의 학과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교과과정으로 하고 필수과목은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누었다. 선택과목은 전 교과과정의 1/3 이내로 하고, 일반 교양과목은 필수과목의 1/3 이내로 하였다. 전공과목은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전공과목은 과목의 1/3 이내로 하였다. 그리고 각 대학의 교과목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23조의 규정을 보면 교과과정과 매주 시간 수는 각 대학에서 작성하여 교학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처리되었다.

1952년 개교와 함께 제정·실시해 온 초창기의 교과과정과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10년 후의 1962년 국립 충청대학교 시절의 교과과정을 비교해 보면 여러 특징이 드러난다. 우선 4년간 재학 중에 이수해야 될 총 학점이 180학점에서 160학점으로 인하되었다는 점, 둘째, 사학과에만 있었지만 부전공제가 없어지고 농과대학의 농학과 및 농업토목과에서 학년별로 교과목을 정해 놓았던 것을 없앤 점, 셋째, 공과대학이 신설됨으로써 그에 따른 교과 과정이 추가된 점, 넷째, 20학점이 감축된 분야는 전공 필수과목에서 10학점과 전공 선택과목에서 10학점이며, 교양과목의 학점은 종전과 같다는 점 등이었다.

그 후 교과 과정은 1963년에 다소 개정되었고, 1964년 9월 15일 및 1966년 7월 21일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삭제되거나 추가된 과목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변경은 각 학과의 자유 재량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었으며, 후에 구성된 교과과정 연구 심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검토된 것은 아니었다.

2) 학점 및 졸업

1952년도 학칙 제29조에 의하면 학생은 매 학기에 24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 학기 이수한 과목성적 평균이 B이상인 자에 한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27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며, 다만 수강학점이 20학점 이상이어야 했다. 같은 학칙 제32조에는 본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80학점으로 규정하고, 졸업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수학점을 6학점에서 8학점으로 하고 이를 통산할 수 있게 하였다. 1962년도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160학점이며 매학기 22학점 이상 취득할 수 없으며, 전 학기 B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3) 교직과 이수

심각한 교원 부족난으로 1954년 11월에 공포된 교육공무원 검정령 시행 세칙은 교직과 설치 기준을 세워 “교직과 이수로 졸업자격 무시험 검정을 거쳐 중등학교 2급 정교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졸업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교직과 각 과목 및 전공 과목의 성적이 B이상인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졸업 때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대학졸업자 중 교직과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 각급 학교(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여 교직에 종사케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문교부 통첩에 의거한 충대 예규 통첩을 문리과대학장에게만 발송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본교에서는 문리과대학 내의 학과에만 교직과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교무과 예규 번호 26)

본교가 실시해 온 교직 과정은 문교부의 사정에 의하여 60년도 신입생부터 잠시 중단되었다가 63년도 신입생부터 교직 과정 신청제도가 부활하였다. 이를 통해 1959년도 입학생으로 교직과를 신청하여 1963년 10월 28일에 대전 시내 고교에 교육실습을 나간 문리과대학의 학생수는 대전 고등학교 4명, 대전공업고등학교 4명, 대전여자고등학교 3명, 충남고등학교 5명으로 이들은 교직 과목 16학점을 이수하였고 학업 성적이 B학점 이상이였다.

한편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교육공무원법은 일반 대학졸업자들에게 중·고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주었던 것을 폐지하였다. 또한 1965년 개정된 교원자격 검정령은 같은 해 졸업예정자까지는 교직 과목 16학점 이상과 교육 실습 3주간을 이수하면 되었으나 1966년 졸업 예정자부터는 교직 과목 19학점 이상과 교육 실습 6주간을 이수해야 된다고 강화하였다. 그러던 중 1974년 실험대학 실시와 더불어 졸업 학점이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인하됨에 따라 교직 과정의 이수 학점은 다시 16학점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1980년도까지 이 교직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수는 수백 명으로, 지금까지 이들은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중·고등학교에서 2세 교육에 봉사하고 있다.

4) 교양학부 설치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문교부의 행정적 차원에서 대학 입시 자격 국가 고시 제도 또는 학사 자격 국가 고시 제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총학장 회의에서 교육의 방법 또는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던 중 대학 교육에서 교양 과목이 많은 위치를 차지하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만을 중요시하고 교양 과목을 경시하여 왔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양 과목을 전담할 교양학부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그 후 교양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교양학부 설립을 권장하였고, 본교에서는 66년 교양학부가 발족되었다. 이리하여 본교는 1966년 1월, 각 단과대학의 교무과장 및 교양 과목 전담 교수들로 임시 구성된 교양교육강화협의위원회를 열어 1월 12일에 2차 회의를 거치고, 다시 학처장 회의를 거쳐 1월 25일 충남대학교 훈령 제40호를 제정·공포함으로써 교양학부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교양학부에 관한 규정으로, 충남대학교 학칙 제33조에 의한 일반 교양 과목 중 공통필수과목의 수업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훈령에 따르면 교양학부의 위원은 각 단과대학 교무과장과 교무처 교무과장이었다. 이리하여 교양학부장에 임창구(문리과대학 수학과), 인문과학 학과장에 이경우(문리과대학 영문과), 자연과학 학과장에 임홍빈(공과대학 화공과) 교수를 임명하였고, 교양학부 위원에 상기 3인과 김진선(공과대학), 김영래(농과대학), 김홍중(법경대학), 김용경(문리과대학) 교수와 왕정 본부 교무과장이 위촉되었다. 교양학부 위원회에서는 수업, 과목 담당, 교재, 강의실, 교육 평가, 기타 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심의되었다.

교양학부 사무실은 문화동 캠퍼스의 도서관 2층 방 한 칸을 빌려 쓰고 있었으며, 사무직원은 한 명뿐이었다. 교양 교육의 강화를 위한 교양학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국립대학이 경우 예산 문제, 시설 관계 등으로 교양교육의 실현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교양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서서히 나아가고는 있었다.

5) 교수의 업무 및 교수방법 개선

1957년도 매주의 수업기준(책임) 시간수와 초과강의 인정 시간 수는 다음과 같다. 국처장, 학장 및 도서관장의 매주 담당책임 시간수는 4시간이고, 초과인정 시간수는 2시간, 교무·학생과장의 책임 시간수는 6시간이고, 초과인정 시간수는 4시간이며, 일반 교원의 책임 시간수는 10시간이고 초과인정 시간수는 5시간으로 하였다. 따라서 초과시간 강의료는 초과인정 시간수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1966년 10월 문교부가 수립하여 학풍조성계획 5개항을 시달한 바 있었는데, 그 내용은 ① 교수 방법의 개선, ② 교수 자질 향상, ③ 대학 내의 선의의 경쟁을 조장, ④ 학력 콘테스트, ⑤ 음악 경연대회 및 감상 등이었다.

먼저, 교수 방법의 개선책으로 각 단과대학에서는 강의 요목을 작성하여 진도표와 함께 열람시키고, 도서관 지도와 실험 중심의 수업을 해야 했다. 종래에는 총장 또는 학장이 어떤 과목이



어떤 내용과 어느 정도로 교수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학생의 학력정도를 인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교수요목(교안, 수업안 또는 수업계획서) 및 진도표를 작성 비치하게 하였다(교무과 예규 번호 23).

그리고 교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기마다 교수 논문을 모아 논문집을 간행하고, 연구 실적 PR, 연구실의 확충, 과단위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또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현상 모집, 전시회, 경연대회, 문학의 밤 등을 실시하였다.

문교부는 “공부하는 학원을 건설하며 생산하는 교육을 추진한다.”는 슬로건 아래 1966년 12월 9일에 있었던 전국대학 총학장 회의에 1967년도 장학 지침을 시달하였다. 그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의 출석률을 성적에 반영하고, 학기당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교수에게는 주당 4일 이상 전일 근무해야 하며, 타 대학 출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교수의 겸직을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1967년도에는 “공부하는 대학생과 연구하는 교수의 기풍 조성”을 위한 장학 방침을 시달하였고, 그에 따라 문교부의 세부 계획 중 일부인 학업 성적 평가 방법이 개정되었다. 본교가 3월 11일에 공포한 학칙 제39조에서는 학생의 출석 성적을 30%나 대폭 반영하고, 종전의 성적 E급(재시험 해당자)을 일단 불가로 하되 특별히 학장의 승인을 얻어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런 기풍 조성 계획은 1968년 2월 중에 완전히 수립되어 3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교수들에게 더욱 강조된 것은 “수업 일수를 엄수할 것, 결강은 틀림없이 보강할 것, 교수 방법과 학습 평가의 개선” 등을 위한 것이었다(교무과 예규 번호 38).

6) 시간강사

1952년 학교 요람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당시도 전임교원 부족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간강사를 많이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케 하였다. 문리과대학의 시간강사로는 타 대학 교수, 변호사, 법원장 또는 판사, 검찰청장 또는 검사,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장 등이었고, 농과대학의 시간강사로는 농업기술원의 원장 및 시험간부, 타 대학 교수, 고등학교 교사, 도청 기사로 있는 분들이 위촉되었다.

4. 수업

1) 학년 학기 및 휴업일

1952년도의 학칙에 의하면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끝났다(제4조). 제1



학기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제2학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였다(제5조). 정기 휴업일은 일요일, 국정공휴일(설날, 3·1절, 식목일, 개교기념일, 제헌절, 광복절, 추수절-추석, 개천절, 한글날, 국제연합일, 성탄절, 춘기휴가, 하기휴가, 동기휴가)이었으며, 임시휴업일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과 총장이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날 등이었다(제6조).

2) 합동 수업, 야간 수업, 수업 일수

1952년 2월 21일자 문교부장관의 통첩에 의하면 학점 취득상의 지장을 주는 것을 제거하고 수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상·하급생의 합동 수업을 가급적 없애며, 분교 수업을 하지 말고, 야간인가 대학을 제외하고는 야간 수업을 폐지하며, 학년 수업 일수는 38주간을 확보토록 하였다(교무과 예규 번호 2).

3) 수업 시간

1955년 3월 7일자 문교부통첩(문고 제1055호)에 의하면, 90분 또는 정미(正味) 2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으로 계속 수업하고 학점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2시간으로 계산하여 온 관례를 지양하도록 하였다. 정미 60분 수업을 1시간으로 하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1시간 초과 수업을 실시치 말도록 하였고, 실험 실습 등으로 1시간 초과 수업을 할 때에는 1시간의 환산은 60분 단위로 하게 하였다(교무과 예규 번호 23). (예: 90분은 1시간 반, 120분은 2시간 등)

4) 학생 군사훈련

1952년 8월 6일자 문교부장관 통첩을 각 대학에 이첩 시달한 내용에 의하면, 「학생군사훈련실시령 개정령」(대통령령 제649호)에 의거, 고등학교 이상의 남학생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육해군 현역장교를 학교에 배속하게 되었다. 수산계 대학 및 고등학교에는 이미 해군 현역장교가 같은 해 7월 4일자로 배속 완료되었고, 그 밖의 해당학교에도 육군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가 배속되어 학생군사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5) 수험료 및 학생 납입금

수험료 및 학생 납입금은 「졸업, 입학 등에 관한 건」이라는 문고 제237호(1952. 2. 21) 문교부장관통첩(교무과 예규 번호 2)에 의하여 징수하였다. 단, 호국단 입단비 및 단비는 별도 중앙



학도호국단의 지시에 따랐다.

(1) 수험료

국공립 : 1만 오천원 이하 실비

사립 : 2만원 이하 실비

(2) 교육자 직계 자녀를 특히 우대하는 의미로 수험료, 입학금, 학도호국단 입단비 및 단비 이외의 납입금의 경감 또는 면제를 도모하도록 한다.

5. 입학 제도

1) 학생 모집

「졸업, 입학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1952년 2월 21자 문교부장관 통첩(문고 제237호)에 의하여 1952년도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집 기일은 전기가 4월 8일부터이고, 후기는 4월 18일부터 입학시험을 실시하였다. 전, 후기의 선택은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토록 되어 있었다. 모집정원은 전시 하의 국방력 증강을 기도하여 별도 지시하는 바에 따라 법학과와 인문계 학생 모집정원을 감축하였다. 선발방법은 학과 필기시험, 구두시험, 신체검사에 의하여 선발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병원의 체격 검사서로 대응토록 하였다. 시험과목 및 진도는 최소한 국어, 사회생활, 영어, 수학 및 학교에서 지정하는 선택과목 1과목 이상, 모두 5과목을 지정하였다.

2) 상이군인 및 제대군인 등의 진학에 있어서의 특전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에 참전하느라 진학의 시기를 잃었거나, 학업을 중단하였던 학생에게 진학 또는 학업계속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상이군인학생 및 제대군인 학생의 입학 또는 복학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취하는 특전을 부여하였다. 문고 제237호(1952. 2. 21) 「졸업, 입학 등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문교부장관통첩에 의하면 명예 제대자에 대하여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학과시험, 신체검사, 납입금 등에 관하여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불구자라도 수업 상 큰 지장이 없는 한 입학하게 되었다(문교부 예규 번호 2).

3) 북한학교 출신자의 대학진학 및 학력 보증

문교부에서는 1951년 9월 17일자로, 「38도선 이북 출신자의 대학진학에 관한 임시조치」를 취



했다. 그러나 취지나 내용을 보면 38도선 이북 출신학생들의 진학에 있어 일반학생과 동등으로 선발고사에 응하도록 한다면, 이북학교 출신자는 도저히 입학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각 고등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임시청강생의 편법을 취하도록 하였다. 2년 반이 지난 후 문교부는 이북학교 출신학생들도 자습, 기타에 의하여 그 학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고 1954년 3월 12일자로 문고 제685호에 의하여 이후는 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유치 적용하여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선발하도록 하였다(교무과 예규 번호 13).

8·15 해방 후 38도선 이북의 각급 학교에 재직할 자 또는 졸업자로서 남한 소재의 각급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득이 임시조치로써 38도선 이북 각 도지사가 발행하는 학력보증서로 학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시행이 문란해지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증명서를 남발하는 경향이 심하여 1954년 4월 17일의 문교부장관훈령(문고 제1004호)이 내려졌고, 이후 같은 증명서를 발행할 때는 각별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교무과 예규 번호 15).

4)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

1953년 2월 18일자 문교부장관훈령(문고 제370호)에 의하면 대학생 전학 인정에 관하여는 1952년도 학업계속 조치로써 전시 학생증 소지 학생에 대하여는 타 대학 전학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1953년도부터는 동종 계열의 학과 간에는 이를 해제하여 소개, 복귀,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적 대학장의 승낙을 얻어 전·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 인가정원 내에서 학기 초 1개월 내에 이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무과 예규 번호 5)

1962년 3월 개정된 학칙에서 재입학은 이적 후 2년을 경과치 않은 자(제명 처분자는 제외)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편입학, 재입학, 전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고, 교내 전학과 전과는 1회에 한하며 전 학년도 B학점 이상 취득자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 제도

대학생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각 대학의 부정 입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도를 실시하였다.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고시에 응시하고, 거기에서 얻은 성적으로 각 대학의 입학 사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가고시 시험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국어(I), 영어, 일반사회, 수학(I),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리 중 택1), 실업가정(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정 중 택1)으로 하고, 선택 과목은 인문계 선택 과목, 자연계 선택 과목, 예능계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처음 실시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에 대하여 각계의 여론이 비등하여 다음 해인 1963년에 동 입시 제도를 다소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만을 가려내는 대학입학자격고시제로 하되, 동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대학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완화하여 선발 방법은 각 대학교가 실시하는 필답 고사에 의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하여 전국 대학 및 고등학교의 우열이 점수에 의하여 드러나 전국 군소 지방 대학에서 지원학생수가 정원에 미달되는 현상을 빚을 뿐 아니라, 국가고시 시행상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문교부는 1963년 4월 2일자로 이 제도를 폐지하고 말았다. 이후 대학입학은 각 대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제할 수도 있고, 계열에 따라 입시 지망생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대학별 본고사 제도로 환원되었다.

6. 학위제도

1) 학과 및 학위

1952년 5월 25일 문고 제480호로 인가된 본교 각 대학의 학과를 보면 문리과대학에 문과, 이과, 법학과의 3개 학과, 농과대학에 농학과, 농업토목학과의 2개 학과, 공과대학에 건축공학과, 섬유공학과의 2개 학과를 두도록 되어있으며 1952년의 본교 학칙으로 규정한 학위는 다음과 같았다. 문리과대학 문학부는 문학사, 문리과대학 이학부는 이학사, 문리과대학 법학부는 법학사, 농과대학 각 학과는 농학사, 공과대학 각 학과는 공학사로 하였다.

2) 학위 수여 상황

(1) 대학

1956년 3월 30일과 같은 해 9월 30일(후기)에 실시된 1955학년도(제1회 졸업식)의 학사학위 수여자는 문리과대학 101명, 농과대학 57명으로 총 158명이었다. 그 중 문리과 대학은 국어국문학과 9명, 영어영문학과 10명, 사학과 19명, 철학과 7명, 물리학과 14명, 화학과 17명, 법학과 24명, 수학과 2명이었다. 그리고 농과대학은 농학과 33명, 농업토목학과 24명이었다. (교무과 예규 번호 37에 첨부된 졸업생 명부에 의함)

(2) 대학원

1957년에 설치인가를 얻은 대학원은 1960년도에야 비로소 1명의 농학석사를 배출하였고, 1965년에는 처음으로 1명에게 농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대학원 학위수여대장에 의함)



3) 학사 자격고시 제도

당시 학위 제도는 학생이 재학 기간 중 8회 이상의 등록을 하고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여 160 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졸업 사정을 하고, 여기에서 통과된 자를 문교부에 상신하여 학위를 수여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5·16혁명 이후 대학 교육 쇠퇴의 일환으로 대학 학사 자격 국가고시 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한 요강에 따르면 고시 과목 중 교양과목은 일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기초적 문제 영역으로 국어, 영어, 자연과학개론 등 3개 과목이었다. 전공과목은 해당 학과에 대하여 이수한 전과목에 걸쳐 기본적인 문제 영역으로 교양과목 60문제, 전공과목 100문제를 사지선다형으로 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61년에 최초로 실시된 학사 자격고시에서 전국 85개 학과에서 18,000명이 응시하였고 본교에서는 183명이 지원, 180명이 응시하여 141명이 합격하였다.

1962년도 학사고시에는 고시 과목 중 교양 과목에 지난해의 3개 과목에다 문화사 과목을 추가하여 시행하였는데, 전국 48개 대학 25,088명이 지원하였고 본교에서는 528명이 응시하였다.

학사 고시 제도에 대한 항간의 여론은 거부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2회에 걸친 시험결과 전국 합격률이 97%를 상회하고, 학사 고시에 소모되는 인력과 경비에 비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2년간의 시행 후에 중단되고 말았다.

4) 야간학부(2부)

1958년 9월 10일 문리과대학내에 본교 야간학부의 설치인가를 얻어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법학과, 경상학과의 5개 학과를 설치하여 군경 및 직장인들에게 면학의 길을 열어놓고 1958년 10월 15일에 개강을 하였다. 1959년도의 학생정원은 국문과 120명, 영문과 100명, 사학과 100명, 법학과 160명, 경상과 200명 총 680명이었다(1958년 12월 10일자 『충남대학교 요람』 학적과 보관). 1961년에 5·16이 일어나자, 혁명정부의 대학정비방침에 의하여 1962년 3월 1일 본교(도립)가 충북대학을 흡수하여 국립 충청대학교로 발족하면서 2부대학은 문리과대학에 흡수되었고 설치인가가 폐지되었다(충남대학교 요람 참조).

7. 교원 인사 제도

대학 교원의 학문적 업적이나 자질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없이 운영되어 왔던 교원 인사 제도를 시정하고 교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부는 각 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두게 하는 동



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1961년 9월 1일 법률 제108호)으로 교수 연구 실적 심사 제도를 만들었다.

본교 인사위원회는 각 대학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2인의 교수와 교무처장(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대학원장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2인의 교수가 교수회의에서 선출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인사 문제에 교수회의가 간여하고 있었으나, 1969년부터는 교수회의가 간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1964년 본교에서 개정·시행한 교원 연구 실적 심사 규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본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신규 임용할 때와 조교를 전임강사로 임용할 때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연구 실적을 심사한다.

제2조 심사는 그 때마다 총장이 지명하는 8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제3조 교원 임용 내신에 있어서는 연구 논문 또는 저서 4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시 연구 실적의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수 자격 인정회에 의하여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 타 대학의 동일 직급에 있는 자.
3. 동일 직급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제2절 학생(복지)

학생활동과 학생 복지는 학교의 위상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생활동을 통해 대학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게 되며 대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며 대학의 성장과 더불어 학생활동과 복지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발전상을 고찰하여 보는 바탕이 된다.

1. 초기 학생활동의 시작과 재건학생회

충남대학교 최초의 신입생은 문리과대학 학생들이었고 1952년 4월 29일 문리과대학 주최로 학생총회를 거쳐 학생임원을 선출하였다. 동년 5월 25일 최초의 개교기념일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배구시합을 하였고 6월 22일에 한밭중학교에서 개최된 북진통일국민대회에 참가하였



다. 1952년 6월 25일 오전 9시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은 원동국민학교에서 개최된 6·25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시가행진을 하였다. 1959년 7월 7일, 비가 오는 데 불구하고 전교생이 일본의 비인도적인 북송에 대해 교포북송을 반대하는 데모를 한 것과 같이 본교 학생들은 나라의 걱정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충남대학교도 대한민국 학도호국단의 규정에 의해 학도호국단이 있었으나 1961년 5·16 이후 6월에는 학풍쇄신과 정신력 배양을 목적으로 재건학생회가 발족되어 그 기능을 계승하였다. 충남대학교에도 1961년 9월 13일에는 학생회칙을 통과시키고 1961년 11월 20일 제1대 재건학생회가 발족되고 첫 학생회장은 서광훈(토목)이었다. 역대 재건학생회장도 1962년 제2대 우길제(농대), 1963년 제3대 강희명(철학), 1964년 제4대 유재승(법학), 1965년 제5대 성강(재료), 1966년 제6대 유행길(사학), 제7대 1967년 조성근(농학)이었다. 재건학생회에서는 나름대로 충남대학교 학풍을 형성하고자 애를 썼으며 단과대학별로 학생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여 다양한 학생활동을 수행하였다.

1) 충남대학교 학도호국단

학도호국단은 1949년 9월 28일 대통령령 제186호로 공포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에 따라 발족한 학생자치단체이다. 개교 후 초창기의 학도호국단은 학생의 과외 활동을 통하여 개성의 발전을 신장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애국운동을 통일 지도하여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본교의 학도호국단은 단장에 총장, 부단장은 교학처장이며 지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두었으며, 모든 조직과 운영은 중앙학도호국단 규정에 준하였다.

1953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충남대학교 전교생이 군사훈련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대전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사열을 실시하였는데, 사열평가는 양호하였다. 1959년 7월 22일 ~ 24일까지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반공방일(反共防日)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집단 해양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학도호국단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밑에 각 학년별 대위원을 두었고 총무부, 공작부, 기율부, 학예부, 후생부, UN학생부, 체육부, 훈련부 및 여학생부를 두고 각 부에 부장 1인, 차장 1인, 그리고 각부에 편의상 반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었다. 총회는 재적학생 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결의는 다수결에 의하였다. 본회 정·부위원장의 선거는 입후보제로 하며 매 학년 초에 전 단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했다. 본회 위원은 각과 학년별로 구두호천 무기명투표로 각 1명씩 선출하였다. 매년 선거시기가 되면 캠퍼스는 위원장단 선거분위기로 들뜨게 되고, 입후보자들은 득표 공작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들이 각 대학에서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학도호국단의 활동으로는 하기방학과 동기방학 중 매년 행사로서 농촌계몽을 위하여 문맹퇴치, 영농의 개량, 공중위생 등을 행하였고, 또한 영화, 강연 및 야학 등을 실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학도호국단 총무부에서는 논산 제2훈련소의 입영장정들을 위문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교내 활동으로는 5월 25일의 개교기념행사와 각 분단 상호 친목을 위한 운동경기를 개최하였다. 하기에는 대천에 건립되어 있는 본교의 해양훈련소에서 심신을 연마하였다. 각종 기념행사 중 학생들의 기율 강화를 위해 기율부를 두고 질서유지에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5월 27일 문교부 지시로 학도호국단이 해산되었고 재건학생회가 이를 계승하였다.

2) 재건학생회

1960년 4·19 혁명 후 학도호국단이 해체되면서 학생자치회가 발족되었고 각 단과대학별로 학우회가 조직되었다. 공과대학에서 최초로 학우회를 조직하고 학생위원장에 김우식이 당선되었고 이어서 문리과대학과 농대에서도 학우회를 조직하였다. 1961년 충남대학보 제19호에 의하면 농대 자치회 구성은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공작부, 농촌지도부, 상임위원회이며 농대 자치회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 1961년 4월은 문리대 학생회 주최로 공주사대와 보육대학을 초청하여 친선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961년 4·19 혁명 후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는 학생자치단체인 학생회를 재건학생회로 개편하였다(충남대학보 40호). 재건학생회인 총학생회기구는 회장과 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와 집행부인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섭외부, 지도부, 직업보도부, 여학생부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각 대의원을 두었다. 재건학생회를 중심으로 각 단대별로 지역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며 농촌계몽과 문맹퇴치사업을 하였다. 학생회와 각 단대별 초창기 농촌계몽활동 장소를 보면 문리대는 보령군 대천면과 농대는 대덕군 북면 평촌리 및 유성면 노은리와 공대는 부여군 은산면 등이었다.

1961년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통합되어 충청대학교라고 불리울 때 충청대학교 재건총학생회로 활동을 하였다. 개교 기념을 위한 보운축제에 앞서 열린 거교적 행사는 학내 체육대회였다. 제1회 개교기념 체육대회는 1961년 5월 24일에 충청대학교 재건 총학생회 주최로 개최되었고, 향후 1963년 3월 1일에 충남대학교로 환원 복귀된 이후에는 충남대학교 재건 학생회가 주관하는 연례 행사가 되었다.

총학생회가 주최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는 1964년 4월 25일 충청남도 도청 강당에서 열린 전국 남녀학생 웅변대회가 있었다. 이는 4·19 혁명 4주년을 맞이하여 그 정신을 상기시키는 동시



에 당시 국내의 팽박한 경제사정과 혼란한 정치 질서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승공의 이념을 되새기기 위한 행사였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행사는 개교 기념을 축하하는 보운축제였다. 1965년 5월 25일에 개교 13주년을 맞이하여 제1회 보운축제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행사의 계획은 총학생회 임원과 단과대학 정·부회장이 참석하여 심의를 결정하고 대학본부의 자문을 받아 발표하게 되었다. 제1회 보운축제행사는 낭만과 열정이 가득한 학생행사였다. 5월 22일 법정대학 경영과 주최로 개최한 음악감상회 및 쌍쌍 파티, 5월 24일 시, 수필, 콩트, 음악 등이 포함된 개교 문학제, 5월 25일 종합 운동장 준공식 및 종합체육대회 개최와 기념식과 10년이상 교직원 근속자 표창식이 있었다. 종합체육대회는 각 단과대학별 시합을 가졌고, 종목은 축구, 배구, 농구, 800m 릴레이, 단과대학별 선수 10명이 종합 운동장을 출발하여 유성까지 14km를 왕복하는 마라톤 대회도 있었다. 또한 각 대학별로도 전공을 살려 각종 행사를 하였는데 공과대학에서는 5월 26일 전국 공과대학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농과대학 학생회 주최로 노래자랑 장기 대회, 사육제 등이 포함된 충농 카니발을 농과대학 정원에서 실시하였다. 5월 27일에는 대전문화원에서 법정대학 법률학회 주최로 모의 재판이 실시되었다.

개교 기념을 겸한 대학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기하였고, 1년에 1회씩 충남대학교 학생의 긍지를 다짐하는데 기여한 바가 컸다. 1966년도에는 보운제 행사에 앞서 1964년과 1965년에 걸쳐 일어났던 한·일 회담 반대의 열풍으로 다소 흐트러진 학풍을 정비하기 위한 학풍 수립 운동 실천 요강을 교학처에서 발표하였고, 총학생회 임원 총회에서는 이를 실천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 실천 요강으로는 독서 운동, 보건 운동, 봉사 활동, 건설한 오락 운동, 공민 훈련, 조급한 현실 참여를 삼가자는 것 등이었다. 1967년 3월에는 총학생회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 예산이 3배로 증액하였고, 개교 15주년기념 제3회 보운제가 성료되고 학생회 활동이 강화되었다.

3) 단과대학별 학생회

재건학생회에서는 단과대학별로 학생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여 학문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학생활동을 펼쳐나갔는데 각 단과대학별 학생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리과대학 학생회

1952년 4월 29일에는 문리과대학 주최로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임원을 선출하였고,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은 6월 25일 충청남도 도립병원 근처에 집합하여 원동국민학교서 개



최된 한국전쟁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시가행진을 하였다. 이 행사는 1952년 5월 25일 개교 후 충남대학생들의 최초의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1954년 6월 10일에는 광주학생운동기념일에 문리과대학 학생운영위원장이 학생대표로 기념탑건립 축하대회에 참석하였고, 6월 15일 권농일에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기념 모내기를 하여 근로 정신을 양양했다. 1959년 12월 12일에는 문리과대학 학도호국단 음악반 주최로 제1회 음악감상회를 개최하여 대학 생활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하였다.

1963년 11월 3일 충남대학교 문리과 대학 교정에서 제5회 학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문리과 대학 학생회 주최로 제1회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행사는 차후 매년 계속된 유일한 행사였다. 1965년에는 문리대학생회 주최로 저명인사초청강연회를 열었고 1966년 문리대 학생회에서 영화감상실을 마련하였고 학생회사업으로 벤치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2) 농과대학 학생회

농과대학 학생회 활동으로는 향토 계몽 및 농촌 봉사활동 등이 있었는데 1954년 4월 5일 식목일에 농과대학생 전원이 연습림에 기념식수를 하였다. 농과대학 대전분교에서는 하기 농촌 계몽대를 조직하고 산하에 근로 봉사반, 생활 계몽반, 위생 및 치료반, 문맹 퇴치반, 순회 강연반을 두고 7월 26일부터 15일간 자매 부락인 청양군 대치면에서 소임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농업기술 지도반을 조직하여 과학적 농사법을 가르쳤다. 또한 청주에 위치한 농과대학 청주분교에서는 전 학생들로 조직된 근로 봉사대가 7월 11일부터 3일간 청원군 사주면에서 송충 구제, 밀베기 작업, 수로 작업, 제초 작업, 우물 소독을 하였고 자매 부락인 보은군 마르면 한중리,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에서 근로 봉사 및 계몽 활동을 하였다. 모두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되어 거교적으로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1961년 12월 27일부터 1월 3일까지 농과대학 학생회 주최로 당시 자매 부락이었던 대덕군 노은리 일대의 향토 계몽과 기술 방면, 특히 농학반에 관한 기술 향상과 축산 농산 제조, 농업 토목 전반에 걸친 재교육으로 농민 각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농과대학 학생회에서 주최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는 1964년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본교 농과대학 강당에서 실시한 농촌 경제 향상을 모색하는 제6회 전국 농과대학 심포지움이 있었다. 이 심포지움도 「농업 협동조합의 사명과 민주화」라는 주제 하에 농촌의 후진성을 계발하여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농촌 부흥과 국가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농학도의 모임이었다.



(3) 공과대학 학생회

개교 12주년을 맞이하여 공과대학 학생회에서는 공학도의 상호간 우의를 도모하고 학구적인 연마를 목적으로 1964년 5월 25일 대전문화원에서 제1회 전국 공과대학 학술 토론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발표부, 질의부, 단체부로 나누어 최우수자에게 총장상을 비롯하여 법경대학장상, 충청남도 지사상, 시장상이 있었다. 당시 건축공학과와 「한국거주 건축의 장래」와 「섬유공학과와 견직 공업의 발전」 및 「화학공학과와 우리나라 화학공업 발전」의 연제가 있었는데, 모두 진지한 질의로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이 토론회는 1965년에도 이어졌다.

(4) 법경대학 학생회

법경대학은 1964년 3월에 신설되었다. 1964년 12월 22일에 법경대학 학생회에서 민주 국가에서의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학생으로서의 학구적인 의욕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 전국 남녀 대학 모의 국회를 개최하였다.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 대강당에서 본교 법경대학생을 비롯하여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전국 14개 대학의 대학생이 참석하였고 국회의장상, 충남대학교 총장상, 충청남도 지사상, 대전지방법원장상, 대전검찰청장상 등이 시상되었다.

(5) 의과대학 신설

1967년 11월 25일 의과대학이 신설되었고 1968년 3월 80명이 의예과로 입학하였다. 이들은 문리과대학에서 2년간의 의예과 학생으로 폭넓게 공부를 하였으며, 당시 의과대학 학생회 조직은 없었다.

4) 서클과 학회를 통한 학생활동

학생들은 학생회와 같은 조직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전공과 관련이 있거나 전공과 관련이 없는 자유로운 활동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학생들끼리의 모임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곧 서클활동으로 확대되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충남대학교에 존재하였던 서클은 다음과 같다. 충남대학교 문학회, 공대 산악회, 농대산악회, 독어 학우회, 씨알 모임회, 상록회, C.C.C.회, 적십자청년봉사대, 향명회가 있었고 영남학우회, 부여학우회 등 지역중심 학우회도 활발하였다.

5) 학생관련 간행물

본교 신문인 충남대학교학보 창간호는 단기 4292년 6월 29일(월요일)에 제1호가 발간되었다.



1959년 당시는 월간이었고 총 4면이었다. 당시 2면에는 백제문화연구회의 취지서, 회칙, 임원 명단, 사업계획서 등이 실려 있다. 1961년 1월호 충남대학보는 8면으로 증면되었다. 1962년 5월 28일 충청대학보로 변경하면서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통합되어 이관되면서 충청대학교로 학교명이 변화되었다(충청대학보 제59호 참조)는 충남대학교 역사에 관한 기록도 충대신문에 남아 있다. 충대신문은 1967년 12월까지 174호를 발간하였다. 학도호국단의 각 단원별 전문 분야에 속하는 연구논문을 단지에 발표했는데 각 단과대학의 대표적인 단지로서 문리과대학은 『상원』, 농과대학은 『대지』, 공과대학은 『천근』이라는 잡지를 학술지로 간행하였다. 학도호국단 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 등 간행물에 대하여 1955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라는 문교부장관 통첩(1955. 12. 2 문고 제4,475호)에 의거, 각 대학으로부터 보고된 바에 의하면, 각 대학의 교내 간행물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별로 없었다. 다만 1953년 4월 20일 창간된 충대문리과대학 학보는 총 4면으로 계간으로 발행되었고, 1956년 2월 18일에 농과대학에서 「대지」 창간호를 발행하였는데 4×6배판으로 186면이 발행되었다.

6) 학생지도

1952년도 개교 초창기의 학생지도체제는 대학본부 교학처에 학생과가 있어서 전체 대학의 학생지도와 장학업무 및 병사문제를 취급하였고 문리과대학과 농과대학에 각각 학생과를 설치하여 학생지도 업무를 담당하였다. 초창기의 교수와 직원 수는 학생 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여 학생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1955년 8월 30일 현재 교수 1인당 학생 31명, 사무직원 1인당 학생 134명의 비율로 지도와 사무를 담당해야 했다.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또는 특히 표창할만한 자에게는 포상하였다(학칙 제47조). 학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났다고 판단될 때는 학생을 징계하고, 근신정학 또는 제적시킬 수 있었다(학칙 제48조). 1959년 10월 충남대학보 4호에 보면 교내의 학생기율을 확립하기 위해 전 교수를 각 과별로 학년별로 배정하여 지도교수제를 실시하였다.

1963년 9월 문교부로부터 학생들의 교외 단체 활동을 소속 총학장의 책임 하에 두어 제약하였고, 학생 총연합회 조직조차 당분간 용인하지 않는다는 등의 학생 지도의 기본 방침이 시달되었다. 이에 따라 과외 활동에 지도 교수를 두어 학생 개인의 상담 및 집단 지도를 하고 교수와 학생 간의 대화 및 인간 관계의 교류 접근과 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면학에 힘쓰도록 방침을 굳혔다.

1967년 6월 8일의 6·8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성토가 본교에서도 6월 15일 문리과대학 운동장에서 있었고, 6월 19일에서 6월 24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그 후 7월 3일 개강과 동시에



1학기 말 시험에 들어갔으나, 또 다시 일어난 규탄 시위에 학교 당국에서는 부득이 7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조기 하기 방학에 들어갔다. 8월 21일 개학과 더불어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교수」의 대학 본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생과 교수 간의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교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게 될 지도 교수제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반드시 30명 이하의 학생 상담지도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었다. 교학처와 각 대학 학생과에는 지도 교수별로 학생 지도 명단을 비치하였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상담을 기대하였다.

2. 학생 장학과 복지의 변화

1) 학생장학제도

초창기 장학제도는 매우 빈약하였으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극히 적은 장학제도는 시행되었다. 즉 1956년 충남대 교무규정 제28조에 의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매 학기 출석일수가 3분의 2이상이며 품행이 방정한 자로 각 학년 1명에 한하여 특대생으로 추천되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면제하여 주었다. 또한 신입생 중 대학별로 필답고시 최고득점자 1명씩(단 문리과대학은 인문, 사회, 자연계별로 각 1명씩)을 인선하여 신입생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었다.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은 국비장학생이나 도비장학생이 될 수 있었는데, 수혜 대상은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었다. 1959년 9월 22일 충남대학교의 국비장학생은 3명, 도비장학생은 4명이 되었다. 충남대학교 교수장학금도 이때 시작이 되었다. 1959년(단기4292년) 12월 19일 문리대 교수회의에서 재직교수들로 구성된 교수장학회 원칙이 가결되고 동년 12월 28일 과 주임회의에서 구체적인 틀이 결정되어 1960년 1학기부터 학년 학과별 각 1명씩 충남대학교 교수장학금이 지급되었다(충남대학보 제7호)가 1961년에는 폐지되었다(충남대학보 제20호). 1961년부터 대여장학금을 주기 시작하였고 그 시행규정이 충남대학보(제23호)에 실려있다. 1959년 12월 20일 공대동창회가 창립되었고 동창회장학금제도를 마련하여 1960년 1학기부터 후배 재학생들에게 동창회장학금을 주었고(충남대학보 제8호) 이것이 동창회장학금의 시작이 되었다.

한편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 상이군경 학생들과 유자녀, 전몰군경유족의 자녀 및 교육회원이자녀 등에게는 학비감면 조치를 취했다. 본교 교직원자녀는 후원회비를 공제 받았으며 상이군경학생은 모든 학비를 감면 조치받았다(교무과 예규 번호 11). 전몰군경유족 및 상이군경 가족에 대한 학비감면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재학생 중 상이군



경,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상이군경가족에 대한 수업료 및 기타의 교육 제 부담금감면은 문교부령 제18호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규정」 제3조에 규정된 인원 내에서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었다. 원호대상자로서 고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에 입학(전편입학 포함)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반 사정이 허용하는 한 가급적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다(교무과 예규 번호 17). 교육회원 자녀 학비 감면은 1956년 3월 15일자 학장회의에서 「교육회원 직계자녀학비감면의 건」을 결의한 후 각 대학에 시달하여 대전시내 교육회원의 자녀는 후원회비, 시설비, 기성회비를 면제하고 후원회 입회금만 징수하였다.

1961년 4월 신학기를 기하여 종전의 일부 장학 제도를 대폭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1) 입학 선발 시험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각 학과 1명씩에게 입학 등록금을 면제함(각 학과마다 입시 최고 득점자 1명씩 3개 단과대학 총 20명에게 입학 등록금 면제 실시. 단 평균 70점 이상인 자라야 함.)
- (2) 특대생: 성적이 우수하고 출석 일수 3분지 2이상이며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학기마다 장학금을 급여함(학기마다 각 1명씩 소정의 후원 장학금을 급여함에 따라 문리과대학 8명, 농과대학 9명에게 급여함.)
- (3) 국비 도비 장학생: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급여함.

1963년에 수여된 장학생 수는 도비장학생은 6명, 대여자장학생은 37명, 5·16장학생은 18명, 수업료감면은 77명, 성적우수자는 102명, 교육회자녀 기성회비감면은 34명, 여학생감면은 42명, 교육회원자녀감면 18명, 현역군인 하사관 감면 4명으로 총 338명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장학금 총액은 1,500,800원이었다. 1965년 2학기에는 전교생의 20%가 장학금혜택을 받을 정도로 충남대학교는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1966년 우리대학의 장학제도는 충무장학금(충남도내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대상), 5·16장학금, 삼성장학금, 경찰장학금(경찰창립일인 1945년 10월 21일에 출생한 남녀대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 대여자장학금, 수업료감면, 동창회장학금 등이 있었다.

2) 학생준칙

1955년에 제정·적용한 충남대학교 학생준칙은 11조로 되어 있다. 본교 학생은 소정의 정복과 정모를 착용하여야 하였으며, 다만 여학생의 복장은 일정한 규격을 지정하지 아니하되, 사치를 배격하고 학생의 본분을 일탈하지 않게 자숙하도록 규정하였다(1조). 그리고 학생은 각 과별 연



구회 활동이나 학도호군단 관계 및 기타 회합할 경우에는 필히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2조), 학생들의 요정, 댄스홀 등에 출입을 금하였던 것(3조)으로 보아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학생은 정당, 사회집단 가입이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4조), 매 학기 3분의 2이상 출석치 않은 자와 15학점 이상 취득치 못한 학생들에게는 학업태만 학생으로 징계하였다(6조). 또한 대학생들은 재학 중 징집연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9조) 재학 중 징집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병역법 제40조에 규정된 자로서 재학 중 징집연기원을 소속 관할 병사구사령부에 제출해야 했다(10조).

3) 학생 후생시설

개교 이래 학교의 틀을 잡으면서 학생후생복지를 시작하였는데 최초로 결정된 학생후생시설은 1959년 9월 문리대에서 학생식당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또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경기장 및 야외극장, 수영장 등이 있는 본교 대운동장을 착공한다는 소식도 충남대학보 3호에 실려있다. 도서관은 1956년 12월 시공되어 1959년 10월에 착공되었는데 명실공히 대학의 학문적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충남대학보 4호).

4) 학생병사

1953년 6월, 당국에서는 대학생들에게 간부후보생 입대지시가 있을 때에 입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케 하는 동시에 대학생들에게 제2국민병 신상문제를 신고케 하였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대학생들에게 제2국민병 수첩을 경신토록 지시하는 동시에, 방학 전에 대학생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1953년 7월 16일에는 군사훈련 수료식을 대흥국민학교에서 거행하고, 같은 해 9월에는 대학생 점호를 선화국민학교에서 실시했다. 1953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충남대학교 전교생이 군사훈련을 받았고 10월 10일에는 대전고등학교 교정에서 예비사열식을 가졌다. 같은 해 10월 12일에는(대전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사열을 실시하였는데, 사열평가는 양호하였다.

문교 제2,324호(1954. 5. 19) 예규 통첩 및 충남대학교 제11호 규례(1954. 5. 27)에 의거한 입대 학생에 대한 학적조치를 보면 재학자로서 현역으로 입대하였을 때는 본인의 의견표시 또는 특별한 절차가 없다 하여도 당연히 휴학으로 인정하여야 함은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 특별조치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학생들에게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였다.

1954년 6월 5일에는 문교부, 국방부 합동으로 학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호평을 들었다.



(1) ROTC 1기생 배출

ROTC(예비역 장교 훈련단)제의 제안은 1960년 초 국방부가 병역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이제까지 실시해 오던 학보병제의 폐지에 따른 새로운 대학생 병사제를 마련하는 데서 발단되었다. 이제까지의 현지 임관제를 폐지하고 장교 양성 경비를 절감하면서 우수한 현역 장교를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1960년 2월 말 국방부에서 실시안이 작성되었고, 이 안에 대하여 문교당국은 대학생에게 군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학 중 입학대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폐단을 시정한다는 점과 일정기간 군사 훈련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예비역 소위로 임관시키자는 데 대하여 찬성하였고, 임관 방법에는 국방부와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1961년 3월 30일 문교부에서는 전국 대학 총장 회의(국립·사립 포함)에서 ROTC 제의 현역 복무 연한과 훈련단의 배치 등 중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그 후 다시 문교·국방부의 실무자 연석 회의를 열어 복무 연한 및 교육 훈련 시간을 조정하고 그간의 행정 및 재정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회부하였다. 후에 이를 정식 통과시켜 국무회의령으로 발표한 바 있었는데, 당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매년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16개 종합대학을 지정하게 된다.
(단 3,000명 중 2,000명은 장교로 임명시키고 1,000명은 하사관으로 복무케 할 것이며, 지정된 학교가 ROTC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대학으로 바꿀 수도 있다. 국방부에서는 가능한 한 이공계 학생을 더욱 환영할 것이라 한다.)
- ② 교육 시간은 주당 5시간 씩 교대로 훈련을 하고, 방학 중에는 4주간 야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3, 4학년 중 총 702 시간의 군사 교육을 받는다.
- ③ 군사 교육 훈련단의 단장은 대령으로 임명하고 지원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중령급의 부단장을 둔다. 지원자가 100명에 평균 1명의 교관을 배치하고 보조관은 10명 정도 두도록 한다.
- ④ ROTC훈련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국방부 담당으로 한다. 훈련 중 학생에게는 군복을 지급하고, 훈련 4개월간은 일반 장교 훈련과 동일하게 한다.
- ⑤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총장과 협의하여 선발 고사를 시행하고 인사 문제도 당해 학교의 총장과 협의한다.
- ⑥ 2년간의 교육기간을 마친 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육군 소위로 임명하여 2년간 복무케 한 후 예비역에 편입시키며 하사관은 1년 6개월 복무케 한 후 예편 조치를 한다.



이상과 같이, 문교·국방부의 실무자 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과 별 다를 바 없으나 임관 후의 복무 연한은 국방부 안이 2년으로 결정된 것이다. 같은 해 4월 26일에 문교·국방 양부는 다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1961년 5월 1일부터 실시될 ROTC 제의 세부 계획인 대학별 인원 배치 및 준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교에서는 전국 16개 종합대학교의 하나로 ROTC 제에 의한 군사 훈련을 맡게 되었고 초대 훈련 장교단 일행으로 단장인 최홍도 중령을 비롯하여 장창원 소령, 정병길 대위와 장교, 병사 5명이 부임하였다. 또한 1961년 5월 19일 문리과대학 교정에서 선발된 100명의 입단식이 거행되었다. 제1기 후보생 대대장은 이영배군이였다. 1961년 6월 1일 충남대학교 제116 학도군사 훈련단이 창설되었다. 당시 최종 결정 시행된 학도 군사 훈련단의 교육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목표는 교육수준이 높고 우수한 예비역 장교의 양성과 예비군 동원에 필요한 초급 장교의 확보이다.
- ② 단훈은 철저한 군기 확립, 실전적 교육의 강화, 지도 능력 향상이다.
- ③ 교육내용은 군사교육과목인 화기학, 학술학, 전술학, 기타학을 3, 4학년 공히 각 175시간씩, 계 350시간을 각 학기 중에 주당 평균 6시간씩 실시하며 사단 야영은 각 학년 하기 방학에 176시간(4주)씩 계352시간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훈련단 시험, 사단 시험, 군검정 시험(3학년 말에 검점 및 4학년말에 종합 검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 ④ 장교 후보생에 대한 특전은 신병훈련을 거치지 않고 본 과정만을 이수하고 군사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피복, 야영수당을 지급받으며 소정고시에 합격되면 예비역 소위로 임관되며 임관 후 4개월 이내에 현역소집 및 2년 단기복무 등이 있다.
- ⑤ 군사 훈련단 조직의 단장은 장교(중령), 훈련단본부는 장교 1명, 병사 6명, 교관반은 장교(소령) 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본교는 116학훈단으로 1963년 2월 22일에는 본교 ROTC 제1기생 83명에 대한 소위 임관식이 거행된 이래 1964년 64명, 1965년 74명, 1966년 63명, 1967년 3월에는 98명의 제5기 소위 임관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제3절 연구(연구현황, 연구소, 산학협력)

1. 연구 여건의 개선

1950년대의 충남대학교는 초창기의 기반을 닦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우선 최대한의 부지 확보와 시설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였다. 그래서 대학의 본래의 사명인 연구 활동의 내실화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1960년대에는 서서히 연구열이 가열되었는데, 특히 4·19와 5·16을 겪으면서 연구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작되었다. 예로 연구 논문집의 제1집 간행이 1960년대 직전(1959)에 출발하여 3년 간을 침묵하다가 1962년 10월 제2집이 속간된 사실이나, 동서문화연구소를 비롯한 연구소가 설치된 것도 연구 활동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가장 활발히 움직인 분야는 농학계로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60년대 우리 대학의 간행물에 발표된 농학계의 연구 논문은 모두 160여 편이나 되었다. 이 사실은 이 시기에 우리 대학이 발표한 전체 논문의 약 40%에 육박한다는 데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대학교에 있어서 이러한 활동은 학위를 받은 전체수의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학 연구의 전성기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어문학과, 사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계의 연구 활동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회학계, 이학계, 공학계의 학술 연구는 미처 활기를 띠지 못하였다. 그 당시 충남대학교에서 간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학술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대학교 연도별(1961~1966) 계열별 저서수〉

계열	연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계
교육학			1					1
국문학			1			1	4	6
철학			2			5		7
사학							2	2
영문학							1	1
독문학							1	1
경영학			1					1
통계학							1	1
농학		1	4				15	20
체육학		1						1
공학				1			1	2
계		2	9	1	0	6	25	43



〈교수 개인별(1961~1967) 연구통계〉

계열	연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철학	학	1	2	3	1	1	3
문학	학		2	6	2	6	7	13
사학	학	1	1	1				
법학	학		2	1		4	1	
정치사회학			1					
경영학	학					2		
수학	학					1		
물리학	학			1		2	2	
화학	학		2			2	1	2
농학	학	5	15	23	5	13	14	16
공학	학		5	2		5	2	2
예학	학		5			1		
계		7	35	37	8	37	30	33

또 1961년~1966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을 계열별로 집계해 보면, 문학계 15편, 공학계 2편, 농학계 20편, 경영학계 1편 등 총 43편의 논문이 간행되었다. 이 논문들은 각 계열별로 학계에 새로운 공헌을 하였고, 그것이 각 집필자들의 학문적 기반과 학계 진출의 디딤돌이 되었다. 논문 집필자들은 일부 전문연구소나 교육 일선에 취업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학계로 나아가 대학 강의에 임하였다.

2.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는 농학계로 수도 4점 5조식과 같은 수도재배시험과 감자, 옥수수의 재배 밀직 시험, 자원식물의 병해조사 등의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비를 받았고, 식장산에 종합농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문교부에서 연구비를 받는 등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60년대 농학 연구의 전성기인 만큼 연구비 또한 농학계 위주로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구비 지원(1961~1967)〉

수령자	연구 주제	지원 기관	지급액
최범렬 박종성 김영래 김문규	수도회농 1호 시험	농촌진흥청	100,700
최범렬 김문규	수도 4점 5조직 재배시험	농촌진흥청	120,000
최창렬	옥수수 밀식재배 시험	농촌진흥청	25,000
박종성 최창렬	추작 “감자” 재식밀도시험	농촌진흥청	25,000
박종성	자원직물의 병해조사	농촌진흥청	100,000
씨알모임	식장산 종합농장 건설계획	문교부	120,000

3. 연구소의 증설과 연구 활동

1) 해외여행 또는 유학 시 연구보고서 제출

초창기에 교수의 학술 연구 기록은 별로 없고, 문고 1516호(1956. 5. 14) 문교부장관의 예규 통첩에 의하면 교수 및 강사가 관비 및 교환교수 또는 사비로 해외에 유학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이 지정한 연구제목을 연구토록 하고 매년 혹은 6개월마다 1회씩 연구보고서를 제출케 하여 사본을 문교부에 제출토록 하였다. 귀국 시에는 귀국보고서도 문교부에 제출토록 하였다(교무과 예규 번호 33).

2) 연구성과 보고

문고 제432호(1960. 2. 2) 문교부장관의 예규 통첩에는, 학술진흥과 산업발전에 공헌할만한 연구실적은 널리 공포하여 실용에 옮기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대학의 지도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므로 교내 학술연구와 실험 실습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성과로서 학술진흥과 산업발전에 공헌될 만한 발견, 발명 등이 있을 시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였다(교무과 예규 번호 41).

1960년대에 설치된 특기할 만한 연구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연구소의 설립과 활동

(1) 백제문화연구소(1964)

이 연구소는 발족한 이래 활동이 부진하여 간행물 하나 내놓지 못하고 급기야는 뒤에 설치된 동서문화연구소에 흡수 병합되고 말았다.

(2) 동서문화연구소

1966년에 발족한 이 연구소 역시 경제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수년을 경과하였을 뿐이었다.

(3) 생산기술연구소

이 연구소가 충남대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수들의 종합연구소의 성격을 띠고 발족한 것은 1963년의 일이었다. 이 연구소는 1966년에 생산기술연구소로 개칭되었는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였다.

4. 간행물

연구소가 설치되었으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어 연구소별로 논문집이 간행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충남대학교 신문은 교수와 학생들의 학술 활동의 소무대일 수밖에 없었다.

5. 교수의 대외 학술활동

본교 교수들은 세계적 추세와 경향을 따라가기 위해 국제성을 띤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뜻이 있는 교수들은 영국, 캐나다, 일본을 포함한 동양권 나라들을 대상으로 유학 및 장기 학술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단기간으로 학술 연수 및 학술회의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전공에 따른 교수들의 다양한 해외진출 비용은 국가(문교부)의 보조이거나 외국의 장학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례였다.



〈해외 유학 교수 명단〉

대 학	직 명	성 명	소 재 지	전 공
농 과 대 학	교 수	박종일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교	미생물학
농 과 대 학	교 수	백운봉	미국 코넬 대학교	통계학
농 과 대 학	교 수	강신업	화란 Hame 대학교	간척학
문리과대학	부 교 수	신용태	캐나다 Montreal 컨스턴퀸즈 대학	위상학
문리과대학	부 교 수	박종희	영국 East Anglia 대학	물리화학
문리과대학	조 교 수	박용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영문학
문리과대학	조 교 수	정완상	미국 브라운 대학교	원자핵물리학
문리과대학	조 교 수	이천배	일본 도야마대학	유기화학
공 과 대 학	부 교 수	맹기석	캐나다 McGill 대학	공업화학
공 과 대 학	부 교 수	송주호	영국 린치 대학	편조학
공 과 대 학	부 교 수	김성연	미국 맨체스터 대학	유기공업화학
공 과 대 학	전임강사	이용재	미국 노스캐롤리나 대학	화학공학
법 경 대 학	조 교 수	김홍규	일본 대판시립 대학	민법

제4절 환경(시설)

1. 문화동 캠퍼스의 교지 확정

1) 개교 당시의 시설 환경

(1) 임시 시설의 사용

충남대학교는 1952년 5월 25일자로 설립 인가를 받아 독립 충남대학교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충남대학교는 다른 지방 종합대학과 같이 그 기초가 될 만한 전신 교육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



때문에 충남대학교는 설립 인가를 받아서 개교할 당시에 부지를 확보하고는 있었지만, 빈약한 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교사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충남대학교는 1951년 5월에 대전에 설치된 전시 연합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던 당시 대흥국민학교의 교사와 법원 내의 청사 일부를 대여 받아서 개강하였으며, 대흥국민학교의 교장실을 빌려서 교수 대기실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충남대학교의 개교와 더불어 대학 본부의 사무실은 대전시 선화동에 위치한 충청남도 도청의 남쪽 별관의 1실(22평)을 대여 받아서 임시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56년 12월에 대전시 문화동에 대학 본부의 건물이 준공되어 대학 본부가 1957년 1월 9일에 이전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개교할 당시의 충남대학교의 시설과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개교할 당시에 충남대학교는 임시 시설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그리하여 2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던 문리과대학은 1952년 6월 7일부터 대흥초등학교의 교사 일부를 차용하여 수업을 개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7일에는 충청남도 도청 구내에 있는 가교사로 이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법학 계통의 강의는 법원 내의 일부 청사를 대여 받아 이루어졌다. 그리고 충청남도 위생 시험소를 화학 실험실로 이용하였으며, 사무실은 충청남도 잠업 취체소의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였다.

한편 개강할 당시에 농과대학도 역시 교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75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던 농과대학은 1952년 7월 12일에 대전시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충청남도 농업 기술원의 건물을 대여 받아서 임시 교사로 사용하였으며, 실습답과 실습전의 경우에도 충청남도 농업 기술원의 포장을 사용하였다.

(2) 시설 현황

개교할 당시의 충남대학교의 시설 현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본부〉

건 물	구 분	실 수	건 평	비 고
본부	교학처 사무국	1	22평	충청남도 도청 구내의 1실을 임시로 사용함



〈문리과대학〉

건 물	구 분	실 수	건 평	비 고
문리과 대 학	강의실	4	96평	충청남도 도청 후면 가교사
	도서관	1	12평	충청남도 도청 후면 가교사
	학도호국단실	1	12평	충청남도 도청 후면 가교사
	강사 휴게실	1	14평	충청남도 도청 후면 가교사
	사무실	2	32평	충청남도 잠업 취체소 건물을 임시로 사용함
	화학실험실	1	40평	충청남도 위생 시험실을 겸용함

〈농과대학〉

건 물	구 분	실 수	건 평	비 고
농과대학	강의실	2	44평	충청남도 잠업 취체소 건물을 임시로 사용함
	사무실	2	26평	충청남도 잠업 취체소 건물을 임시로 사용함
	도서관	1	20평	충청남도 잠업 취체소 건물을 임시로 사용함
	실험실	1	12평	충청남도 잠업 취체소 건물을 임시로 사용함
	제포실	1	5평	충청남도 잠업 취체소 건물을 임시로 사용함
	실습답			충청남도 농업 기술원 포장을 임시로 사용함
	실습전			충청남도 농업 기술원 포장을 임시로 사용함

2) 문화동 캠퍼스의 교지 확정

(1) 교지의 선정과 확보

1952년 3월 26일에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충남대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에 의하면 충남대학교의 위치는 대전시 대사동 76번지(국유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문교부장관의 충남대학교 설립 인가서에는 ‘현재 정한 위치는 적당치 않으므로 속히 신 교지를 선정하여 2개월 내에 그 변경인가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충남대학교의 교지 후보지로 대전 시내의 여러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대전시 대사동과 문화동 소재 군용지의 후편(남측)에 있는 부지가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160,594평을 충남대학교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1954년 2월 8일 및 4월 8일자로 문교부장관에게 <충남대학교 위치변경 기타 설립사항 변경의 건>을 인가·신청하여 1954년 4월 15일자로 인가·확정되었는데, 이 인가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 ① 위치 : 충청남도 대전시 문화동 18번지
- ② 교지와 체육장 : 교지는 40,000평, 체육장은 25,000평 이상으로 정비할 것
- ③ 실습지 : 교지 인근에 63,000평 이상을 확보·정비하되, 부속 농장으로서의 시설을 완비할 것
- ④ 교사 및 부속 도서관 : 각 단과대학 교사와 부속 도서관을 합하여 우선 1,785평 이상을 신축할 것
- ⑤ 이상 제2항 및 제4항의 사항은 1956년 말까지 완수하되,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 자체의 부담으로 할 것

이리하여 충남대학교의 교지 매수 예상 면적을 167,084평으로 확정하였고, 이미 1951년부터 조직된 충남대학교 설립 기성회 산하 대전시 기성회의 책임 아래 1953년부터 1954년까지 동 기성회에서 매수한 토지 45,136평과 국유림을 본교 연습림으로 대부받은 임야 178,920평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1955년부터는 충청남도 도비 예산에 계상하여 매수하였던 바, 1956년 6월 1일 기준 매수 토지 면적은 연습림을 제외하고 94,196평에 이르렀으며, 1959년 6월 1일에는 129,709평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1960년 말에는 예정 면적이 192,722평으로 늘어난 데에 비례하여 충남대학교 교지의 매수 면적도 170,394평으로 확장되었고, 그밖에 연습림 대부 면적 178,920평을 확보하게 되었다.

교지 매입비를 처음에는 기성회비와 후원회비에 기대하였다. 그러나 충남대학교는 독립인 만큼 그 재원의 대부분을 도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60년 말까지 교지 매입비의 90%는 도비에서 부담하였는데, 도비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도에 대한 국고 보조금과 지방 재정 교부금의 상당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원칙적으로 교지 매입의 방법은 협의 매수였는데, 그 매수에 관한 실제 사무는 본교의 총무과에서 관장하였고, 토지 매수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대전시 기성회 매수분은 동 기성회 가격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충청남도 도비 매수분은 충남대학교 교지 매수위원회(1955년 8월 20일 조직)에서 결정하였다. 그리고 토지 대금 등 보상 업무는 충청남도 회계과에서 집행하였다.



(2) 부지의 정지

충남대학교의 교지가 점차 확보됨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대한 정지 작업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그러나 부지의 정지에 따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캠퍼스 내 요소의 부지 미 매수가 있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캠퍼스의 종합적인 정지 공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충남대학교의 부지 정지 작업은 각 대학별로 분리하여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충남대학교의 부지 정지 공사가 제일 먼저 착공된 곳은 농과대학의 부지였다. 농과대학 부지의 정지 공사는 1953년 9월에 시공되었는데, 충남대학교 설립 기성회 직영으로 군용 불도저를 무상 지원을 받았고, 유류는 기성회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였다. 이어서 문리과대학의 정지 공사가 1954년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그 후 공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정지 작업도 점차 부분적으로 시공되었다.

충남대학교 부지의 정지 공사와 농과대학 농업토목과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불도저의 구입은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충남대학교에서는 개교 직후부터 충청남도를 통하여 재정 지원을 내무부에 보조,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56년 5월에야 국고 보조금을 얻어 도 재정으로 불도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본교의 부지 정지 공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2. 교사와 부속 시설의 신축

1) 교사의 신축

(1) 문리과대학

문리과대학의 부지에 대한 정지 공사가 1954년 6월에 완료된 다음, 우선 제2본관의 신축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1954년 12월 31일에는 그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제2본관이 완공됨에 따라 1952년 6월 7일 이후 거의 3년 동안 충청남도 도청 구내의 가교사에서 수업을 진행해 왔던 문리과대학이 드디어 1955년 4월 5일에 신축된 제2본관으로 이전하여 수업을 하게 되었다. 문리과대학의 제2본관은 321평 규모를 지닌 목조 기와집 건물이었었는데, 이 건물의 신축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7,800,000원이었는데 이 공사비는 전액 도비에서 부담하였다.

그리고 1955년 7월 31일에는 232평 규모의 목조 기와집 건물인 물리·화학 실험실이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실험실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9,368,500원이었으며 전액 도비에서 부담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31일에는 38평 규모로 된 목조 기와집의 숙직실 및 창고가 준공되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1,300,000원이었으며 전액 도비에서 부담하였다. 또한 1956년



9월 30일에는 222평의 규모를 지닌 콘센트 가교사 2동이 준공을 보았다.

그리고 1957년 8월 31일에는 69평 규모의 특수 과학관 건물이 신축되었다. 연와조의 건물로 지어진 특수 과학관의 신축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6,020,000환이었는데, 이 공사비는 후원회 및 기성회비 6,000,000환과 도비 20,000환 등의 재원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1958년 8월 31일에는 드디어 제1본관이 준공되었다. 이 제1본관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722평 규모의 3층 건물이었다. 이 제1본관의 신축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108,067,000환이었는데, 이 공사비는 국고 보조금 55,100,000환, 후원회비 및 기성회비 21,097,000환, 도채 26,070,000환, 그리고 도비 5,800,000환 등의 재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958년 9월 30일에는 충남대학교의 식수 해결을 위해 연와조의 양수장(3평)과 철근 콘크리트의 저수 탱크(9평)가 준공되었다. 그리고 1959년 3월 20일에는 4.2평 규모의 차고와 8평 규모의 발전실을 준공하였다. 이어서 1959년 9월 15일에는 정문 수위실(4평)이 준공을 보게 되었다.

(2) 농과대학

농과대학은 개교한 이후 1952년 7월 12일부터 충청남도 농업 기술원의 일부를 빌려서 개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농과대학의 경우 교사의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1953년 9월에 이르러 농과대학의 부지 정지 공사가 시공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일 먼저 농과대학의 제1실험실과 제2실험실을 비롯하여 숙직실과 창고 및 화장실이 1953년 10월 7일에 착공하였으며, 그 후 1954년 3월 30일에는 그 준공을 보게 되었다.

농과대학의 제1실험실(193.50평)과 제2실험실(121평)은 라스모르타르 기와집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으며, 숙직실 및 창고(36평), 그리고 화장실(7.50평)은 목조 기와집의 건물이었다. 이들 건물의 총 건평은 358평이었는데, 이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7,664,800환이었으며, 그 재원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였다. 그리고 이 실험실이 준공된 다음 달인 4월 23일에는 충청남도 농업 기술원의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농과대학이 이곳으로 이전하여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농과대학의 실험실이 준공됨으로써 수업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이 신축된 건물은 원래 실험실의 용도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대로 여기에서 각종의 실험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위한 본관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더욱이 학생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이 같은 필요성은 더욱 가중되었기 때문에 본관 건물의 신축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 후 농과대학 제1본관의 신축 공사가 1956년에 착공하게 되었으며 1957년 8월 31일에는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제1본관의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 일부 3층으로 건평은 665평이었다. 그리고 이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67,978,500환이었다. 이 농과대학 제1본관의 신축 공사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57,075,500환과 후원회비 및 기성회비 10,903,000환으로 충당되었고, 그 밖에 UNKRA 원조 12 교실 분의 시멘트와 목재 원조 물자도 이 신축 공사에 투입되었다.

이와 같이 농과대학의 제1본관과 실험실이 준공을 보게 됨으로써 농과대학의 강의와 실험 문제는 일단 해결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농과대학의 필수 기관인 부속 농장과 부속 동물 사육장 등의 신축 공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5년 5월 30일에는 15.25평의 규모를 지닌 목조 기와집의 농부사가 준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56년 9월 17일에는 목장 사무실, 사료 조제실, 돈사, 계사(121평)가 준공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9일에는 연와조 편지방으로 된 온실 및 망실(27.25평)이 준공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9월 30일에는 철골 양철 지붕의 농장 부속사(콘센트, 111평)가 준공을 보았다. 또한 1956년 11월 11일에는 12평의 규모를 지닌 목조 기와집의 목부사도 준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1958년 8월 30일에는 목조 기와집의 우사 및 양사(14평)가 준공되었다.

이로써 농과대학의 실습지가 마련되고, 부속 농장과 부속 동물 사육장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는데, 여기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9,540,500환이었으며 이는 후원회비와 기성회비로 충당하였다.

그리고 1958년 10월 18일에는 농과대학 농학과의 실험실의 하나인 초자실이 착공되었다. 이 농과대학 초자실은 1960년 10월 20일에 준공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115만원이었다. 이 연구실은 온실과 농과대학 본관 사이의 약 200여 평의 공지에 세워졌는데, 건물의 규모는 17평에 달하는 중형 건물이었다.

한편 1960년 11월 2일에는 농산제조학과 실험실을 건립하기 위해 농과대학 본관의 서편에 위치한 부지 300여 평에 정지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1960년 11월 중순에 기초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혹한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이듬해 봄에 공사를 재개하여 1961년 5월 15일에 실험실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실험실은 총 280평 규모의 2층으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었는데, 여기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국가 보조금 1,500만원으로 전액 문교부에서 보조하였다.



(3) 공과대학

충남대학교의 설립 인가 때 공과대학도 인가를 받기는 했지만, ‘공과대학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개교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 때문에 공과대학은 개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54년 4월 15일에 이르러 개교 승인을 받아 그 해 5월 3일에 비로소 개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과대학은 문화동에 신축한 농과대학 실험실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였다.

그 후 1955년 8월 30일에는 공과대학의 제1실험실이 준공되었다. 준공된 제1실험실은 181.50평 규모로 된 목조 기와집의 건물이었었는데, 1955년 10월 8일에는 공과대학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5년 8월 30일에는 제1실험실과 함께 숙직실 및 실험실(36평)과 화장실(6평)도 동시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숙직실 및 실험실은 36평 규모로 된 목조 기와집이었고, 화장실은 6평의 규모를 지닌 목조 기와집이었다. 이 제1실험실과 숙직실 및 실험실, 그리고 화장실의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2,690,000환이었으며, 이는 전액 도비로 충당하였다.

공과대학은 섬유공학과와 실험 실습에 필요한 부속 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과대학 개강과 더불어 1955년부터 문리과대학이 교사로 사용하던 충청남도 도청 구내의 180평 규모의 가교사를 공장으로 개조하고, 여기에 약간의 방적기를 구입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56년 9월 30일에 이르러 문화동 공과대학 내에 111평 규모로 된 콘서트 건물이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충청남도 도청 구내의 공장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공장 실습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6년 12월 1일에는 공과대학 제1본관의 신축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1958년 8월 31일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공과대학 제1본관은 437.80평의 연와조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이 제1본관의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60,920,000환이었는데, 그 재원은 국고 보조금 29,990,000환, 후원회비 및 기성회비 14,000,000환, 도채 13,930,000환, 도비 3,000,000환으로 충당하였다.

1961년 4월에는 불의의 화재로 인해 공과대학의 실험실이 소실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학 당국에서는 소실된 실험실의 복구에 진력하여 섬유공학과와 화학공학과 실험실을 콘서트에 우선 설치하였으며, 완전 복구를 갈망하던 본교 당국은 1962년에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에 힘입어 1962년 5월 초순에 공과대학 실험실을 복구 완공하고 실험 실습 기구와 기계를 도입하였다.

그 후 공과대학의 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건립된 건물로만은 학생을 효과적



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자 공과대학 교수회는 1960년 11월 23일에 장기 발전 계획을 위해 공과대학 건설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건설 위원회의 목적은 공과대학의 발전과 제반 건설 계획을 능률적으로 추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

공과대학의 신축 공사는 1961년 7월 27일에 기공하여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3개월 여의 공사 끝에 공과대학의 신관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일에 공과대학 본관의 낙 성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공과대학의 건물 및 부지는 1963년 6월에 독립 대전실업고등학교에 이양되었고, 농과 대학의 서북방에 위치한 부지에 공과대학의 새 교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 부지는 기초 공사가 완료된 900여 평의 과학관 대지였다.

공과대학의 이전 공사는 1963년 10월 15일에 착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4년 6월에는 농산 제조학 실험실 정면에 있는 900여 평의 대지 위에 공과대학의 새 교사가 준공되었다. 신축을 본 공과대학의 새 교사는 연 749평의 규모를 지닌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의 2층 건물이었다. 이 건물에는 강의실(9실)과 실험실(5실) 그리고 연구실(10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공과대학 새 교사의 신축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1,265만여 원이었다. 그 후 1965년 10월 7일에는 공사비 600여 만 원을 들여서 262평이 증축됨으로써 공과대학의 총 건평은 1,011평에 이르게 되었다.

2) 부속 시설의 신축

(1) 대학본부 및 대학원

충청남도 도청 구내의 일부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던 대학 본부는 1956년에 대학본부와 도서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다. 이 건물은 1956년 12월 30일에 준공되었으며, 1957년 1월 9일에 대학본부가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당초에 대학본부와 도서관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 건물은 계획과는 달리 대학본부와 대학원 건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것은 도서관이 1956년 12월 25일에 준공된 우남 도서관(대전시 대흥동 소재)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도서관은 1957년 4월 8일에 우남 도서관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대학원이 1957년 3월 23일자로 대학본부와 더불어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대학본부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의 2층 건물(278평)이었다. 총 공사비 20,848,500원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였으며, 그 외에도 UNKRA 원조 9 교실 분의 시멘트와 목재가 이 공사에 사용되었다.



(2) 부속 도서관

충남대학교는 1952년에 개교할 당시에는 재정 사정과 시설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속 도서관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53년부터 충청남도 도청 구내의 문리과대학 교사 1실을 문리과대학 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이 도서관은 문리과대학이 1955년 4월 5일에 신축된 제2본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문리과대학 도서관은 논산 김용훈씨의 한서(500여 권), 공주 이세찬씨의 한서(500여 권), 대전 안모씨의 한서(500여 권), 옥천 송재덕씨의 한서(1,000여 권), 서울 김상용씨의 영서(200여 권), 경성대학교 교수였던 일인 모씨의 동양 철학서(200여 권), 사학자 황의돈씨의 장서(1,200여 권)를 매입하거나 기증을 받아서 개관을 하게 되었다.

충남대학교는 원래 1956년 12월 20일에 준공된 대학 본부의 건물을 도서관과 함께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6년 12월 25일에 준공을 본 우남 도서관(대전시 대흥동 소재)을 충남대학교 부속 도서관으로도 겸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1957년 4월 8일에 우남 도서관으로 이전하면서 비로소 충남대학교 부속 도서관은 발족되었다. 이 건물은 연와조의 2층 건물(331평)로, 총 공사비는 45,900,000원이었는데 이는 도민의 성금(도비)으로 이루어졌다.

이 무렵에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 현황을 살펴보면 1956년 8월 15일 당시에는 17,013권이었으며, 1957년 10월 31일 당시에는 31,639권이였다.

그 후 충남대학교 부속 도서관은 1960년 4·19와 더불어 대전방송국으로 이양됨에 따라 문리과대학 교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2년 10월 10일에는 전 대학원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1963년 3월 5일에 이르러 중앙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대학 당국은 1964년 4월에 도서관의 신축 계획을 세우고, 총 공사비 2,000여 만 원을 들여 도서관(건평 600평)을 건립하기 위해 착공하였다. 원래 이 부지에는 종합 대강당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정대학이 문리과대학에서 분리됨에 따라 그 계획이 변경된 결과였다. 그리고 도서관의 이전과 아울러 문리과대학의 구관을 사용하고 있던 법정대학은 도서관 건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도서관의 신축을 위한 제1차 공사는 1964년 12월 14일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 건물은 지상 2층(연건평 600평)의 건물이었으며, 총 공사비는 3,314,200원이었다. 1966년 5월 19일에는 도서관의 신축을 위한 마지막 공사인 제2차 공사가 시작되었고, 1966년 11월 26일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증축 공사는 문교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증축비 13,399,380원을 들여 이 공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도서관의 총 평수는 연 600평에 이르게 되었다.



이 도서관에는 동시에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열람실과 특수 열람실 등의 여러 열람실을 갖추고 있었다. 이 도서관의 1층에는 현관이 위치하였고, 2층에는 대열람실(101평)과 교수 열람실(30평)을 비롯하여 대학원 사무실, 실험실, 교양학부 그리고 휴게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의 3층에는 특별 열람실을 비롯하여 책을 정리하는 하역실, 서고, 음악 감상실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또한 4층 옥상에는 플라스틱을 천정으로 한 스카이라운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간단한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강당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61년 이후의 도서관의 보유 장서를 대략 살펴보면, 1961년에는 26,789권, 1962년에는 28,550권, 1963년에는 30,851권, 1964년에는 33,182권, 1965년에는 32,303권, 1966년에는 32,630권 그리고 1967년에는 35,233권이였다.

(3) 종합운동장

충남대학교는 원래 각 단과 대학마다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전교생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충남대학교의 학교 부지는 타 대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데다가 본부와 각 단과 대학 사이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서로 왕래하는 데에 불편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충남대학교의 캠퍼스 짜임새는 영성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교지 안에 민간인의 경작지가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대학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에서는 캠퍼스를 정비하여 학원다운 면모를 갖추고자 약 2만평 정도의 종합 운동장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 종합 운동장은 1963년 5월에 육상 경기장을 비롯하여 야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을 포함한 총 19,027평을 계획으로 하여 착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대학 당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기성회비 40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공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오직 농과대학의 녹슨 불도저 한 대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정지 작업 중에는 경작자를 중심으로 한 부락민들의 투서와 맹렬한 반대가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종합운동장의 부지는 지형 상으로 10m 이상으로 굴곡이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과 밭 사이에 있는 작은 하천 등으로 지세도 평탄하지가 않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불도저가 작업 도중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의 공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시 대전지구 미군사 고문관 크로웰 단장이 이곳을 시찰하고 지원을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관구 사령관인 채명신 장군의 협조 약속이 있었다. 이와 같은 한·미군측의 협조를 받아 착공된 지 3년이 지난 1966년 6월에 이르러 드디어 종합운동장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소요된 총 경비는 210만 원 정도였는데, 만일 일반 업자에게 맡겼더라면 638만 원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었다. 이러한 고충을 알게 된 문교부에서는 종합운동장의 개설비로 580만 원의 특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지원 자금으로 충남대학교에서는 종합운동장의 부대시설인 메인 스타디움과 배수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기성회비를 추가하여 문리과대학의 서편에 있는 콘센트 건물을 160여 평으로 확대하여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남대학교 개교 15주년 기념식 2일 전인 1967년 5월 23일에는 드디어 종합운동장이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 종합운동장은 농구장, 야구장, 배구장, 정구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4) 특수 과학관

1961년에 중앙의 승인을 얻어 특수 과학관의 설계가 완공하게 되었는데, 이 공사 계획에는 특수 과학관의 건물은 건평 123평이었고, 1957년도 ICA 원조 물자에 의한 4 교실 분의 건축 자료와 도 당국이 보조하는 공사비 2,400만 환으로 1961년 12월경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계획이 약간 지연됨에 따라, 특수 과학관의 착공은 1962년 3월 초순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건평 123평에 벽돌 단층 건물로 지어진 이 특수 과학관은 총 공사비 1,845만 환과 관급자재 미송 23,698/B를 들여서 3개월여의 공사 끝에 1962년 6월 15일에 이르러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특수 과학관 건물의 전체 규모는 비록 작은 감이 들지만, 실내 배치에 있어서는 원자력원과 국방과학 연구소의 내부 구조 중 장점만을 모방한 것으로, 당시에 국내에 있는 어느 기존 실험실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 실험실로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특수 과학관은 낙성식이 끝나고 바로 물리 화학 실험실로 사용되었는데, 이 특수 과학관의 내부 시설로는 드래프터 장치와 고정 실험대가 완비된 각각의 화학 실험실과 물리 실험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이 특수 과학관에는 에어컨디션 장치가 완비된 방사능 측정실을 비롯하여 동위원소 저장실, 방사성 물질 처리실, 스펙트로 포토 메타실, 그리고 기타 준비실과 교수 연구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 후 원자력원에서는 중부 지방의 방사능 측정을 위탁해 오게 되었고, 1962년 12월 15일에는 원자력원이 특수 과학관에 공기 흡인 장치(Aircollector)와 동판계 우수 채취 장치, 그리고 G-M 카운타 등의 방사능 측정 연구를 위한 각종 기구와 Gummedpaper 50여 매, planchet, 초자 기구, 시약 종류 등의 재료를 기증하였다.

(5) 농과대학 기상대

1960년 11월 하순에는 농과대학 기상대가 준공되었다. 이 농과대학 기상대는 농과대학 본관의 동북 편에 위치한 10여 평 규모의 부지에 건립되었다. 이 기상대의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경비는 45만 원이었다. 이 농과대학 기상대에는 Robinsous cup Anemometer 일조계를 비롯하여 지중 한온계, 백엽상, 증발계, 우량계, 자기 한온계, 풍신계 등의 기구를 비치하였다.

(6) 농과대학 가축 사료 저장고

농과대학에서는 본 대학의 교육 방침인 실험 실습 교육의 중점화를 실현하기 위해 1960년 7월 말경에 그 당시로서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최신식 원형지상식 silo를 완공하였다. 이것은 Cutter를 이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으로, 그 규모는 내경 5척, 높이 15척, 용적 294,375척, Ensilage 용량 10,303 Lbs 정도의 크기였으며, 건재는 철근 콘크리트였다.

(7) 농과대학 부속 가축병원

농과대학 부속 가축병원은 처음에는 농과대학 목장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후 1963년에 문교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65년 5월 14일에 대전시 대흥동 321번지로 가축병원이 이전하여 개원하였다.

이로써 실험 재료의 부족과 제반 시설의 결핍 등으로 인하여 개원 이래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농과대학 부속 가축병원은 조제실과 수술실을 비롯하여 임상 진단실 등을 완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타 가축병원과는 달리 농과대학 부속 가축병원은 가축의 건강 진단과 치료는 물론 혈액 검사, 대변 검사 그리고 임상 진단에 필요한 특수 시설도 갖추게 되었다.



제5절 행정

1. 충남대학교의 출범

1) 교육기구

설립인가 당시 도입 충남대학교의 기구 편제는 본부에 교학처와 사무국을 두고, 문리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의 3개 단과대학으로 인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과대학의 개교는 보류되었고 문리과대학과 농과대학만이 발족하게 되었다.

대학교 본부에는 총장 산하에 교학처와 사무국을 두고, 교학처에는 교무과와 학생과를 두었으며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었다. 1952년 5월 초대 교학처장 서리에는 문리과대학의 손낙범 교수가 취임하였으며, 1952년 6월 6일 초대 사무국장에는 가정로 서기관이 취임하였다. 그리고 1956년 9월 29일 문리과대학 금기창 교수가 제2대 교학국장에 취임하였다.

본부 사무실은 개교와 더불어 대전시 선화동 소재 충남도청 남쪽 별관 1개실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으며, 1956년 12월 대전시 문화동의 본부 건물이 준공되어 1957년 1월 9일 이전할 때까지 약 4년 6개월간 집무가 이루어졌다.

2) 후원재단의 설립과 활동

(1) 설립

충남대학교는 1952년 5월 25일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문리과대학과 등 5개 학과로 설립된 우리 대학은 전국에서 유일한 독립대학으로 출범하였다. 그런데 당시 본교 설립 인가서에 의하면 「후원 재단을 계획대로 완수할 것」으로 되어 있어 후원 재단의 설립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교 재정 지원을 위해서도 그 설립이 필요 불가결한 형편이었다. 이에 1952년 10월 16일 충청남도 문정과에 충남대학교 설립 기성회가 결성되었고,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협의안을 상정하여 재산 중 국채권과 현금 등 도합 약 10억 원을 제공하여 충남대학교 후원 재단 설립을 결의하였다.

이에 후원 재단 설립 위원회를 조직하고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인가(연월일 미상)를 얻음으로써 「재단법인 충남대학교 후원 재단」이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설립 취지서는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충남대학교 후원 재단 설립 취지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 대학교육의 보급 확충이 무엇보다도 급무라 아니할 수 없다. 대체로 국가의 성쇠와 민족사회의 흥폐가 모두 교육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로 증명하는 바이며 우리나라의 현실로서 저 경술의 국치라든지 6·25의 동란이 모두 문화수준이 얇은 민족의 무지로 인한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이 민족번영의 기초과업이 된다는 견지 하에서 세계열강이 다 대학 건설에 국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하여 우리 한국의 대학교육기관이 그 수에 있어서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종래 수도 서울에 편집하여 있던 관계로 6·25의 피해가 특히 격심하여 조속히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이때에 우리 충남대학교가 독립종합대학으로 금년 5월 새로운 발족을 보게 된 것은 국가 백년의 성업이며 특히 본 도를 위하여 경축하는 바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전혀 도의 경비나 국가 재정만에 의존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별개로 이를 육성하고 추진하여 줄 수 있는 강력한 기구의 존재가 반드시 요청되는 바이므로 이에 재단법인 충남대학교 후원 재단을 설립하여 대학의 사명 완수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다.

당시 본교 후원 재단은 사무소를 충남대학교 사무국 내에 두었으며, 목적은 충남대학교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원조를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으로는 학교 시설의 유지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업, 교원의 학술 연구 원조에 관한 사업과 학생 장학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기본 재산은 설립 기성회에서 기부한 국채권과 현금 10억 원이 그 기본을 이루었으며, 보통 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하게 되었다.

임원은 이사 7명, 감사 3명, 참사 약간 명, 간사장 1명,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되었다. 충청남도 지사와 본교 총장은 재임 중 당연직 이사로 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지사가 선임되었다. 초대 이사장에는 성낙서 지사가 선임되었고 지사 경질 시마다 새로운 지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본교 민태식 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재임 중 이사를 겸임하였고, 선임이사와 감사는 자료 미비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본교 설립 기성회 부회장에는 인권식씨, 중도일보 사장 이웅렬씨, 대전상공회의소 소장 문갑동씨, 송진백씨 등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장에는 기성회 간사인 고인섭씨가 선임되었다.



(2) 활동

본 재단은 설립 후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서산군 고북면의 해안 90여 정보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얻어 염전의 조성에 착공한 바 있으며, 염전이 완성되면 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본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었다. 착공 후 수년간 인권식 이사과 고인섭 간사장이 전력을 경주하였으나, 재정조달이 용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해의 극심한 해랑으로 시공한 시설이 누차 유실되어 동 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후원 재단은 1960년경에 해산되었다.

2. 대학기구의 확충 및 정비

1) 초대 총장의 취임

성낙서 총장 서리가 1954년 9월 27일 충남도지사를 사임함에 따라 본교의 총장서리도 자동 사임하게 되었다. 그 후 약 2개월의 공석 기간을 지나 같은 해 12월 2일자로 문리과대학의 민태식 학장이 총장서리를 겸무하였다. 1955년 6월 30일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전교 법정교수회에서 민태식 총장서리를 총장으로 선출하였고, 같은 해 8월 29일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동안 충청남도지사 겸직 총장서리가 개교 이래 대학행정을 맡아오다가 비로소 민태식 교수가 전임 총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이다. 1955년 9월 10일 오후 2시 문리과대학 교정에서 민태식 교수의 총장 취임식이 거행되었는데, 당시 총장은 본부 중심의 대학 운영보다 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단과대학 중심의 대학운영을 피력한 바 있다. 1958년 9월 18일에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2부(야간부)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2) 행정 및 교학 기구

개교 당시는 본부와 문리과대학 및 농과대학의 2개 대학에 불과하던 기구가, 1954년 4월 15일에는 보류 중이던 공과대학의 개교가 승인되었고, 1957년 4월 4일에는 대학원의 설치가 인가되어 개설하게 되었다. 이어 1957년 4월 8일에는 부속 도서관이 발족되고, 1958년 9월 18일에는 직업인들이 대망하던 2부(야간부)대학이 설치되어 본교의 기구 편제도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 행정

개교 당시의 행정 기구는 본부에 교학처와 사무국이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종전과 같이 교학처(그 후에는 교학국이래 개칭)에 교무과와 학생과, 사무국에 총무과와 경리과가 있었다. 문리과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에는 각각 교무과, 학생과, 서무과를 두었고, 대학원과 2부대학도 이에 준하였으며, 부속 도서관에는 서무와 사서의 2계를 두었다.

(2) 교학

① 교수회

각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도록 학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즉 각 대학에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었으며,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하되, 의장인 학장이 이를 소집하였고, 의결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교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다. 고사(시험)와 사정에 관한 사항
- 라.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1953년 4월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라 교수회는 총장, 학장 및 교수의 임명동의권을 갖게 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으로 조직되는 교수회에서 동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교수회는 그 후(1956년경) 학칙 개정에 따라 조교수 이상으로 조직하되 단과대학 교수회 외에 전체 교수회를 두도록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 교수회를 개최한 예는 드물었다.

② 부속 시설

농과대학 학생의 학습을 위하여 농과대학에 부속 농장, 부속 동물사육장, 부속 가축병원, 부속 연습림을 두었으며, 공과대학 학생의 학습을 위하여 공과대학에 부속 공장을 두었다.

3. 대학 성장의 전기 마련, 기구의 확충과 도약

도립대학으로 출범했던 본교는 1960년 5·16에 의해 공포된 대학정비령에 의해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이 통합되어 국립 충청대학교로 개편되었고, 충남대학교의 농과대학은 청주의 농과대학에, 2부대학은 문리과대학에 각각 흡수되었다. 국립 충청대학교 총장으로 1962년 3월



1일자로 이정호 본교 총장이 발령되었다. 독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승격시킨 점은 재정 부담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으나, 대전캠퍼스와 청주캠퍼스의 분리 운영으로 학교의 관리운영의 불편 및 학생들의 수학상의 불편 등에 의해 1963년 3월 1일 다시 국립 충남대학교로 전환되었다.

이 기간의 사무국 편제는 별다른 변화없이 종전대로 시행되어 왔다. 다만 본교가 국립 종합대학교로 이관됨에 따라 충남대학교 후원회가 폐지되어 등록금 중에 후원 회비 명목으로 각출되던 것이 없어졌다. 동회에서 기용되고 있던 직원들은 1962년 2월 28일을 기해 전원 해직되었다. 또한 종전까지 각 단과대학별로 분산되어 있던 각종 사무가 본부로 집중케 되어 종합대학교로서의 기능이 정비되었고, 시설에 있어서도 종합화의 계획 실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